

길거리에서 살수 없다.
강제철거 막아내자.

천막촌

호외 1.
1988. 8. 5



서초동 꽃동네 철거투쟁소식

“무엇이 두려우랴! 우리는 단결했다”

-기습적 강제철거, 주민들이 뚝뚝뚝 쳐 막아냈다-

더이상 참을 수 없다

전날 자행된 강제철거에 항의하기 위한 천막주민들의 우렁찬 구호와 노래소리로 서초구청은 아침부터 그 기세가 마비되었다. 300여명에 달한 우리 천막촌 형제들은 “우리들도 인간이다...더이상 참을 수 없다...단결가”를 힘차게 부르면서 내집, 내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2, 500여 가구 중 불과 300여명에 불과한데도 구청측은 준비박산하여 우리들을 진정시키느라 전멸을 쏟았고 구청장은 겁에 질려 도망가 버렸다. 어젯밤을 온눈으로 지새우다시피했던 우리들이었지만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야겠다는 필사적인 각오는 두려울게 없었다.



구청민들 있고 들어가 형의 농성을 하고 있다.

— 우리의 요구 —

**주거대책 문제해결!
강제철거 원상복구!
부상자 치료비 보상!**

구청은 해명하라!

1. 강제철거 경위 밝힐것
2. 대영공업사 허가조건
3. 경찰관 개인비호 동원경위
4. 전경 동원경위
5. 20대 청년들 집단 난동사건

국장이 나와 해명

이러한 투쟁으로 그동안 오만했던 서초구청은 굴복하고 구청장대신 도시장비국장을 직접 주민들앞에 내세워 해명을 하게 하였다. 이자리에서 도시장비국장은 철거된 8가구에 대한 대책은 주민대표와 철거된 피해자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라고 전기, 급수문제는 즉시 해결

단결만이 우리의 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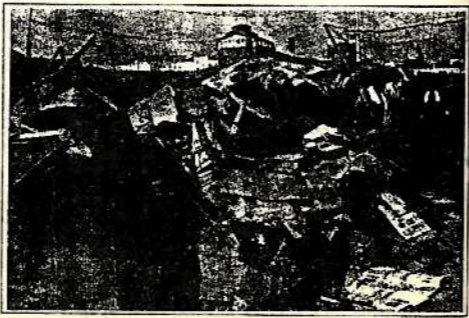
우리 주민들은 구청측의 이러한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이제 우리들도 단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 비닐하우스 주민들의 생존권을 삼복가구뿐 아니라 이천오백가구 전체가 뚝뚝뚝 쳐 단결할때 우리는 기립코 생존권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근 향재들은 물론 저밀리 풍로에 있는 장신동 주민들까지 와서 우리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면서 같은 철거민들의 온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귀중한 교훈이 되었다.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비록 걸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손익간에 8가구가 파괴되었다. 인근 천막형제들까지 나와 함께 도로를 차단하고 격렬한 싸움속에 결국 철거는 저지되었다. 우리는 이번 철거를 보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결의를 다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들이 동쳐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 부서진 짐을 일단 수리하고 더이상 철거가 자행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길이길 단결해야 할 것이다.

단결하세! 단결하세!

비록 가난했지만 그래도 우리들 나름의 행복과 따뜻한 온정속에 평화스럽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보금자리가 8월 3일 아침 9시경부터 포크레인과 전경 투입 그리고 100여명의 철거기동대의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되었다. 살림을 내손으로 커녕 오만만 기다려 달라는 말도 없이, 아주머니들의 애원을 구경만 보듯 짓기며 “떠드는 년의 집부터 부숴라” 하며 마저 악과저림 날뛰었다. 주민 대다수가 일하러 나가고 말더니, 아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비록 걸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손익간에 8가구가 파괴되었다. 인근 천막형제들까지 나와 함께 도로를 차단하고 격렬한 싸움속에 결국 철거는 저지되었다. 우리는 이번 철거를 보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결의를 다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들이 동쳐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 부서진 짐을 일단 수리하고 더이상 철거가 자행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길이길 단결해야 할 것이다.



철거장면들이 부은 우리 모국거리



주거대책 보장없이 강제철거 어렵었다

정연한 어둠이오



사흘이면 누구나 만평된 주거에서 살 권리가 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평화신문

도심속 소외지대 ‘비닐천막촌의 삶’

서울 서초동 꽃마을일대 2천세대 암울한 하루하루
불결한 환경 신경제세 없이 철거당할까 늘 조바심



이동준! 내는 아이 야비도 안나

함께 힘을 합치면 철거의 불안에서 해방된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서초동비닐하우스촌에 이사한 후 부터 언제철거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날들을 보내며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하에 머가 부서지도록 일을 했고, 또 때론 지주에의해 몇가구가 개인리차원에서 철거를 당하기도 했다.

철거장패들이 육설, 구타해

우리가 무어가 비닐하우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스의 사할이라 하여, 평...생각조차 하지 못했음니다. 하지만 불의의 조치나 보. 상 아무런 대책도 없는 이같은 엄청난 일들은

철거를 당하고도 항변조차 하지 않았음니다. 그런데 배주대낮에 강제철거에 대한 통보내지 사전 경고조차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철거장패들이 등장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해가며 부녀자를 위협하고 구타하고 제발 싹살이를 꺼내게 30분만 10분만 시간을 달라는 눈물어린 애절한 호소도 묵살한채 우리의 팔자리를 산산히 부숴버렸음니다.



수인들 앞의 나와 공개해명을 하고 있는 도시장비국장

강제철거에 대한 사전 경고가 없었기에 우리는 강제철거가 있을 거라는

단결된 힘을 통해서만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나갈것도 돈도 없음니다. 이같은 우리 비닐하우스촌의 어려움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우리의 생존권과 신변은 우리의 단결된힘을 통해서만 보호받고 지켜질 수 있을음. 기면구형농성을 통해 우리는 확인했음니다. 이제 는더이상 내집이 철거당하지 않는다고 망심해신 안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합치면 우리의 생

강제철거 중지하고 임대주택 보장하라

꽃마을메이리

제1호

발행처: 청장학회·부녀준비회
발행일: 1989년 3월 14일

‘우리는 단결하여 승리하리라’

강제철거 사전음모 백일하에 드러나!

지금 마을에는 지주와 협상하여 집을 팔고 나가자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1000만원 정도면 파지 않겠느냐는 말들도 있습니다. 얼마전 6만에서 17세대가 단결로 집을 팔고 이주하였고 21, 22만에서도 지주와의 협상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여기서 몇 임원진은 사색비를 받아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이 주민을 팔아 자기 뱃속을 채운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 지주와의 협상으로 모든 일이 해결될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선결되어야 할 주민들의 단결에 금이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강제철거의 사전 음모입니다.

이제 곧 검찰청사 공사가 완공되어 입주하게 되고 그전에 철거를 하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위와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주민들이 분열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주와 관에서 의도했던 것이고 몇 임원진이 이에 걸락 주민들을 팔아 자기뱃속을 채우고, 우리 청사앞 꽃동네는 국도의 불안과 철거위협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루빨리 모든 주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



전화작업이 교외쪽으로 지연되어 더욱 크게 확산된 화재시국 18.16 청사앞 주민들의 단결투쟁. "청사주민 공동공회 생존권을 쟁취하자"

결하고 같은 배를 탄 우리들이 마르마로 살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결하여 같이 살길을 찾아야 할때입니다.

분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단결했을 때만이 우리의 생존권. 주거근본대책을 쟁취할수 있고 흩어지면 아무것도 얻을수 없는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부녀준비회와 청장년회의 결성취지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된후 부녀회와 청장년회를 만들고 자 여여차에 이야기가 있었으나 회장단에서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부녀회와 청장년회를 결성할수 있고 없고의 권한은 회장단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마을의 여여까지 상황을 고려하여 되도록이면 마찰이 없이 일해 나가기 위하여 절계를 하여 온 것이다.

그러던중 6만 17세대 전매사태가 발생하였고 회장단이 연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25개 반장님들이 뜻이 하나로 되어 있지 못하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은 불안과 회의도 하루하루를 생활하여야 했습니다. 분열과 불안을 본연히 펼쳐버리고 마을 주민이 하나가 될수 있는 목표설정과 하고 이르기 위하여 부녀준비회와 청

장년생존권쟁취회가 결성되게 된 것입니다.

부녀준비회는 1차 준비모임과 임시모임을 가지면서 주민이 분열될수 밖에 없었던 요인들을 찾아냈고 주민모두가 동참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청장년회는 수차례의 회의를 가지면서 주민을 위해 일할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였습니다. 일차적으로 지역상황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할수 있도록 공고를 하였으며 주민들이 용기를 가질수 있도록 프랭크라도 걸고 밤샘토도 돌렸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단결을 위해 부녀준비회와청장년생존권쟁취회는 수직적이고 일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바랍니다.

주장 단결된 힘, 하나의 목소리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눈과 비를 피해야 하고 하루종일 노동으로 시달린 지근한 몸을 쉬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집은 투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60평, 70평 3채 4채나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같은 도시민들은 한칸짜리 집하나 변변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집이 부부민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어 집값은 하늘높은을 모르게 뛰어올라 더욱 집값안하기는 어렵게 되고 껌껌한 지하실방이나 산동네, 그리고 우리 청사앞같은 천막촌에서 살수밖에 없도록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정책

집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집없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정책은 어떤했을까요? 해가 갈수록 주택보급률은 떨어지고 서울 곳곳에 고층아파트는 북쪽 올라가는데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또한 재개발한답시고 우리같은 도시민들은 다 내쫓고 북부민들의 치맛바람만 남기고 건설회사 돈벌이만 시키면서 결국은 투기를 조장시키고 도시민들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서초동 꽃동네에 천막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목동에서 부터 사당동 창신동 상계동등 서울 각지에서 재개발이 대대적으로 일어나 얼마 안되는 수임으로 살만한 곳이 급격히 줄어들고, 재개발로 밀려난 철거민이 늘어나면서 부어 아님니까!

•재개발지역 철거민대투쟁에서 배워야 할 것

요즘 신문이나 동에서 임대주택, 복지주택을 얼마만큼 짓겠느냐니 하는 발표가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지 안집지는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이러한 발표는 왜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끊임없이 싸워왔기 때문이며 그들의 주장이 정당하고 올바르다는 것을 국민모두가 인정했기때문이며 정부스스로도 이제까지의 주택정책이 잘못되었고 세입자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청사앞 주민들이 배워야 할것은 단결된 힘으로 하나되어 싸워야 생존권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주장이 정당할때 많은 단체, 여론의 지지를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모습과 앞으로의 방향

6만에서의 집단전매사건과 21, 22만에서의 지주와의 협상 문제논의 그리고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지주가 얼마를 주면 나가겠다는 소문들, 그러나 지주가 돈을 줄 이유가 없고 실제 만족할만한 돈을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단결을 해치는 것이며 우리의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많은 시민의 지지, 도움을 거절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돈이 아니라 살길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지주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택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주민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결정해야 하지만 입주금이 적고 월 불임금이 짝 임대 주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을 요구하며 싸워나갈때 우리의 정당성을 회복되는 것이고 재개발지역 세입자들과도 단결하여 힘차게 싸워나갈수 있을것입니다.

철거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은 단결의 힘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와 관의 음모는 엄청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효과적으로 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고립분산적으로 격돌의 손아귀에 놓이아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고있는 원인을 빨리 파악하여 힘찬 단결로 우리들의 보금자리를 쟁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우리 자신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우리들이 액어 가진 보금자리가 쟁취하느냐 박탈당하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철거의 위험이 어느때보다 닥쳐있고 지주들의 본연공적이 거세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은 이해하지 못하고 태연자약하거나 무관심해 버린다면 지주들의 돈 몇천에 종거나고 맏겠습니다.

2)주민들을 단결시키고 힘을 모아갈 지도부의 새로운 모습이 요청됩니다. 그동안의 자치회라는 우리 주민들의 조직이 있었고 자치회를 중심으로 우리들은 단결하여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자치회 임원들은 우리 주민들의 의

사를 대변하고 주민을 지키며 하기 보다는 개인의 사익사욕에 앞장섰던게 현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소수의 사람들이 자치회를 차지우지하면서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다수 사람들의 열정을 파괴해 버리곤 하였었습니다.

3)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우리의 생존권은 다른 사람이 대신 찾아주는게 아닙니다. 나 자신부터 열심히 참여하고 모두를 위해 일해갈 때 우리 지역은 기필코 보금자리를 마련해 갈수 있을 것입니다. 단결은 멀미있거나 걸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부터 올바른 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힘을 합칠때 우리는 어떤 동네보다 튼튼한 힘을 가질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토론회: 16(목)일, 8시
주최-청장학회, 부녀준비회

철거민 하나되어 빈민생존권 쟁취하자!

제4호
 발행처: 청사앞 자치위원회
 청장년회, 부녀회
 발행일: 1989년 5월 6일

검찰청사앞 소식

강제철거 시정원으로 부엌채등 박살내지!

**‘서초동 꽃마을’ 강제철거 않기로
 법원·검찰청사 진입로 주변 35세대는 제외**

서울시는 1년 시공 시유동... (text continues with details about the demolition plan and the 35 households being exempted)

5월 2일자 한겨레신문을 보면 "서초동 꽃마을 일대의 무리가 판자집을 강제철거 않고, 지주와 원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진입로에 해당하는 1만 35세대는 생계대책 비 160만원을 주겠다."라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습니까. 이제까지의 다른 지역에서 철거강제를 동반한 무주비 한 강제철거를 없앴다고 하니 우선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런 발표를 하게된 배경과 의도를 신중해 검토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찾아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고려한 발표라면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강제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배경과 의도를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목동에서부터 상당동, 창신동, 돈암동 등에서의 강제철거로 인한 부상자, 보급작비 파괴, 생존권 박탈은 사회문제화되어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고 무엇보다도 우리 형

정직하게 삽시다. 한인선 회장

주민 여러분 그간 가내무고하시리라 믿고 인사말을 생략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은 없으나 인간의 본성마저 쳐버리고 살아서는 안되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흔히 붙여다니는 말대로 철거민 내지는 말대로 철거민 내지는 비닐하우스에 사는 빈민이라는 사실이 껴나 삶에 희의를 느끼게 하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곳에 정착하여 살고있는 사실이 가장 귀중한 쟁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기꾼이라는 엄청난 누명아래 철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야 될 시기라 생각되어 몇마디 적고자 합니다.

어려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의 전임자가 회장으로 있을 당시에 여러분의 집에 동직원과 자치위원회가 같이 변호를

동부지역 결의대회 보고

4월 16일(일) 오후 2시에 동부지역 철거민들이 평화촌에서 신가촌까지 이르는 강계철거 결사저지와 임대주택쟁취를 위한 동부지역 주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주민결의대회를 하계된 동기는 강계철거의 위협속에서 우리는 이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살권리를 주장하는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국민에게 알리는 평화행진이었다.

이날 우리동네에서 결의대회에 참가하게된 동기는 우리 또한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우리도 참가한 것이다. 이날 우리동네 주민중 참석하신분은 청장년회 3분원이었다. 그리고 여러 지역회장님과 서울시철거민협의회 회장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평화촌 주민들과 한몸이 되어서 결의대회로 들어갔다.

동부지역장님의 인사말씀, 고광석회장의 격려사, 결의문낭독 등의 순서로 우리들이 단결된 강계철거 저지투쟁을 결의하고 신가촌으로 이동하며하자 평화촌 어귀에서 부러 백여명의 전경들이 동내입구를 차단하였다.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던와중 최후만을 싸우고 정산없이 치하는 우리형제들에게 돌을 던지고 또 흩어지는 형제들을

잡아서 전신을 구두발로 밟아버리는 등 11명의 부상자들이 속속하고 또한 6명을 불법연행하였다.

경찰의 강경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형제들은 다시금 단결하면 산다는 의지로 평화행진을 계속 강행하였다. 단결한 결과로 우리는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고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전경들의 폭력앞에서도 소수인원이 단결하여 우리의 목적을 쟁취하는 그 흐뭇한 모습을 보고 우리마을도 단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 그러나 전경 우리마을은 단결하기 앞서 서로의 의견만을 내세우는 경향이 보인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단결한다면 그 무엇이 우리의 나아갈길을 막겠는가? 우리는 다시금 단결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진정 청사앞 주민들께 바랍니다.

단결하여 우리마을을 내가 지키고 나아가서 내집을 내손으로 꼭 지킵시다. 그리하여 임대주택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단결하여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국민한사람 한사람에게 알립니다.

지켜워야 할 것이

- 현 집행부에서 실패조사를 끝내고 주민 여러분의 보시는 관점과 주민 여러분의 유,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여러분 일개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주민 전체에 해를 초래한다면 주민의 손실은 너무나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방이 없어서 방을 가르기 보다는 금전을 목적으로 방을 갈라놓은 상책입니다. 주민이 데를 위하여 소가 희생은 못할 망정 소가 데를 지쳐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주민여러분 옆집에 집을 가르시면 수시로 집행부에 연락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청사앞 주민여러분 저희 집행부가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하기 위하여 부녀회와 청장년회가 발족하였습니다. 청사앞 부녀회원 여러분 우리지역에 호소를 같이하고 히노애락을 같이하는 기쁜자 여성이면 누구나 부녀회원 모두가 우리일이 바로 내집일로 여기고 내재산을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참여하여 지역을 걱정하여 주십시오. 청장년 회장님

“함께 사는 세상”

둘도 부녀회와 동일하게 남의 일이 아님을 지혜로운신 두뇌와 강건한 힘으로 더욱 더 저의 부락을 훌륭하게 믿고 걱정하여 주십시오.

- 주민여러분 날씨가 초여름을 방불케하는 환절기에 맞추어 청소! 위생! 건강! 불조심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안은 내가 숲선수범하여 지켜주십시오.

"군자는 대로를 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를 먼저하여 한마디의 말을 세번 생각하고 말올한다."



← [면에서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에 다짐을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투기꾼이라는 대명사로 동내전체를 매도해서는 더욱 안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없고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이해당사중에 걸린 환자와 같은 욕망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서로 충고하고 서로 도움과 합심해서 동내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합매하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동네에는 연일 낮모르는 수사관이 투기꾼을 색출한다는 명분아래 동내를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분의 금전에 눈이 어두워 불행한 비극을 가져와서는 안되겠습니다.

얼의 법원판지에서 2명이 방한관씩 잘라 팔았다 하여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이 바로 동내를 매도하고 관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투기꾼이라는 엄청난비극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하다고 너무 분에 넘치는 욕구는 곧 보다 더 큰 불행을 초래한다는 원리를 여러분은 기성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이제 우리 모두가 자제하고 심사숙고하여 합심단결하여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되오니 각성하여 자제와 인내를 발휘 현실을 직시하고 노력하는 욕구에 눈이 어두워 동내를 매도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저의 말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가내 무고와 안일을 가원하면서 힘을 높겠습니다.

우리는 왜 구청에 들어왔는가?

서초동 달동네 주민 100여세대는 지난 11월 23일 서초구청장이 '강제철거계고장'을 보낸 사실을 엄중히 항의한다.

지난 10월 배밭골 철거를 필두로 하여 서울시 전역에서 철거장대들이 동원되며 무차별한 살인철거가 자행되었다. 이에 서철협 형제들은 11월 16-17일 국회의사당앞에서, 서울시청앞에서 고강 저질러진 재개발의 비리와 만행을 폭로·거탄하고, 강대철거를 방조한 서울시장의 해명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싸움의 결과로 지난 11월 19일 서울시장으로부터 '동절기에 주민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러한 서울시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장은 달동네 23세대에게 '12월 10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톱보없이 강제철거할 대상이니 자진철거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계고장을 발송해왔던 것이다.

달동네는 비록 비닐하우스 천막이지만 우리들에게 행복을 쌓아가는 보금자리이다. 셋방살이의 설움과 재개발로 인해 쫓기다시며 이쑤시게 오게되며 가난하지만 소박한 꿈을 갖고 살아가는 보금자리를 배앗으려는 적의는 무엇인가? 대설(大雪)도 지나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서초구청장은 정녕 우리들을 얼어붙은 길바닥으로 내몰아 때죽음 시키려 하는 것인가?

달동네 주민 일동은 대책없는 강제철거 중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겨울의 강제철거는 결단코 중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 우리의 요구 -

- 판잣집도 서러운데 겨울철거 왜말이나 !!!
- 명동 설한 계고장 구청장은 해명하라 !!!
- 대책없는 강제철거 구청장은 해명하라 !!!
- 도시빈민 푹푹몰쳐 주거대책 마련하자 !!!

1988. 12. 8. 달동네 자치위원회.

김금 속보

발행일 : 1990년 8월 28일
발행처 : 서초동 객골자치회

이이위이라 어찌 우리이날을!



... 철거 우리의 보금자리를... ..

■ 농성과 철야대회회의로 밤을 지새우다

28일 7시 강제 철거를 접한 우리주민들은 모두가 충격과 분노를 가슴에 품었다. 전혀 예고 없이 하루기 서문가 아직 심사결정 상태에 시의 강제철거는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었다. 주민들은 순서대로 철거하는 분노를 한창 결심으로 외쳤다.

"강제철거 중단하고 신대협 보장하라"

새벽 4시경 우리주민들은 도로농성을 끝마치고 마을회관 대문까지 투쟁대가 들어갔다.

달동네 주민들은 "철거된 내일은 '철거를 당하는 주민'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투쟁한다는 것이다." 라는 비선한 마음을 함께 모았다.

주민들은 특히 집어 각구청에서의 강제철거를 예상해 누구도 아닌 강대 철거를 알지못한게 짐을 머리 내어 놓기로 하였다.

4000여명이 들어막힌 기가 막힌 강제철거!

아침 7시경부터 전경일부가 동네주민에게 배척되는 것을 시작으로 각 구청에서의 차출된 인원, 철거반원, 친선부들이 각역에서 밀려오고 포크레인, 불도저, 소방차, 청소차 등이 배치되었다. 또한 주민들의 집을 강제이동하기 위한 회물차량 약 100대가 동원되었다. 기가막힌 주민들은 '경비원'과 함께 2시간 싸움을 하고 격렬하게 저항하였지만 모조리 단행 당하고 말았다.

■ 짓밟히는 보금자리

주민들을 강제이동한후 불도저의 동네 진입을 시작으로 철거반원들이 들어닥쳐 우리의 보금자리를 짓어찌기 시작했다.

서초동 달동네 주민들이 강제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단행한 농성과 철야대회

비록 리얼하우스라 남들은 욕망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손때가 저민 구슬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면 어떤 까닭에 달동네 주민들은 주민들의 애정을 무로하며, 각종 불법적인 도주행위와 철거반원들, 결국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떻게 짓어찌기 하였는가?

■ 투쟁의 시작, 온몸으로 저항하자

이제 우리에게도 단이상 없을 것도, 가야 할 곳도 없다. 서초구청을 통해 우리에게 대책이 다 마련되었다고 떠들어댔지만 우리주민들이 호실한 일방적인 사람이 그 누가 있나.

이제 우리에게 남은일은 딱하나!

우리의 버티기이며 우리가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가혹어파한 것들을 참아내며 단행려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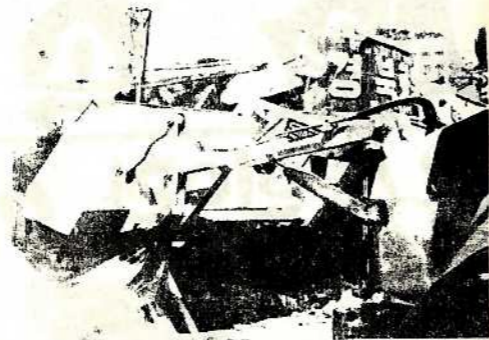
그날은 우리가 진정한 생존권을 쟁취하는 날이며 같은 길로 함께 가는 날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배를 탄 한 헌명의 동지입니다. 개인적 애증보다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데 우리의 힘과 믿음을 한데 모읍시다.

단결 단결 단결!
단결만이 살길이다.



가장 먼저 진입하는 불도저의 위용



무기대인도 우리 보금자리를 짓밟아 간다.



주민을 밀어부치는 사복 경찰들

우리의 요구

1. 강제 철거에 반대한다
2. 휴식권 보장을 위해 사복 경찰에게 살인죄를 열거한다
3. 영구 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을 요구한다



넌들의 대를 결코 물려 줄수 없다.



이 쓰라린 아픔! 기필코 '고' 일어서리라!



내동댕이 쳐지는 짐들사이로 정들때마다 넌의 새끼이 똥웃음친다.

No. 1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올바른 교세를 키우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선생님께 드립니다.

부족하고 철없는 아이들이지만 항상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선생님의 고마우신 마음 항상 마음 속에 담고 있습니다.

찾아뵙고 아이들에 대해 상의도 드리고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었지만 여유없는 생활에 쫓기다 보니 마음 분이군요

대가 대비없이 갑자기 당한 강제 철거로 아이들의 학습준비는 물론 먹고 앉는 것조차 챙기지 못해 학교에서 아이들 문제로 더욱 큰 걱정을 하시리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온갖 세상풍파 겪고 살아온 어른들이야 그럭저럭 참고 산다고 치더라도 잘못된 현실로 인해 어린 아이들까지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부모로서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문입니다.

오래전 부터 철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한다 했는데도 막상 5,000여명 거대한 인원이 들이닥치다 보니 이것 저것 경황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앉아서 당하는 일이라 정신없이 길거리로 거적대기 같은 살림이나마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비 뉘듯 세워진 저희들의 생활이 그나마 폭풍과 비로 망가지고 아이들이 병든 몸으로 밤을 노상에서 지새다 보니 처음엔 이렇게 견뎌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회의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긋지긋한 가난을 결코 우리 아이들에게는 물려줄수 없다는 약에 가까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더욱기가 막힌 읽은 신문이나 TV에서 나오는 보도들이었습니다.

마치 서울시가 저희들에게 영구 임대주택을 보장해 주고 이주대책

을 마련해준 것처럼 보도하고, 더욱 더 기가 찬 것은 저희들을 투기꾼
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투기꾼이라면 어린 ^{자녀} 새끼
똥에 두고 빛 속에서 병을 앓아가며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싸쳐야 하고 앞으로도 싸쳐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만큼은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살다보니 후에 또 다시 강제 철거가 들어와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 안이 될런지, 저들의 발로는
3일밖에 간지도에 우리들의 짐을 버린다고도 하지 앞으로의 일을
예기치 못하게 되어,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등교를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바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일하시는 선생님께 또 다른 걱정을
까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대배 건강하십시오

1990년 9월 2일

서초 3동 객골 정보사 철거민 학부모 일동

경 고 장

자치회에서는 집을 짓고, 늘리고, 조개는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것과 함께 빈집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따라 현재 마을 내 있는 빈집들은 오는 3월 20일
까지 입주하지 않을시 자치회에서는 투기행위로 간주
하여 강경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1991년 3월 1일

군 부 대 앞 자 치 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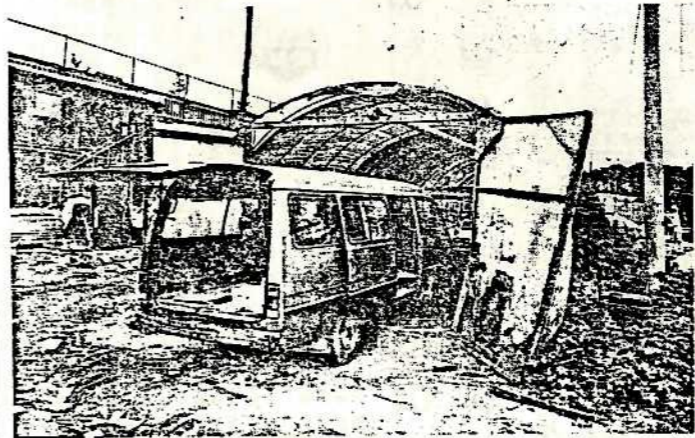
경 고 장

자치회에서 지난 3월 20일까지 마을내 빈집에 대해 입주할 것을 강력히 경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입주하지 않은 집이 있어 이에 자치회는 다시한번 오는 4월 15일까지 입주할것을 경고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 투기행위로 간주하여 철거할것임을 최종 경고 합니다.

1991년 3월 24일

관 부 대 안 자 치 위 협 회

서울시서 말긴 철거경비업체 住民에 1년새 億臺 뜯어



차량정비업소 둔갑 불법 비닐하우스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서울의 한 구역을 본 모습이다. 서울근교 비닐하우스는 영농용보다 주거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비닐하우스 陽性化 미끼 철거뒤 다시 지어 팔기도

서울牛眠洞 일대 77가구서 4배로 늘어나

5명 승차
1.20 동아

서울시 서남권 일대 비닐하우스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철거된 후 다시 지어 팔기도 하는 등 불법 비닐하우스의 양적 팽창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근교 비닐하우스는 영농용보다 주거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비닐하우스는 1986년 1만 2천여 채에서 1987년 1만 4천여 채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근교 일대 비닐하우스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서울근교 일대 비닐하우스는 1986년 1천 5백여 채에서 1987년 2천 5백여 채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서울시내 비닐하우스의 증가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영농용 비닐하우스의 증가이다. 둘째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증가이다.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주로 서울근교 일대에 많이 건설되고 있다. 이는 서울근교 일대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비닐하우스의 80% 이상이 불법이다. 불법 비닐하우스는 대부분 서울근교 일대에 건설되고 있다. 이는 서울근교 일대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서울시내 비닐하우스의 증가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영농용 비닐하우스의 증가이다. 둘째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증가이다.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주로 서울근교 일대에 많이 건설되고 있다. 이는 서울근교 일대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都市의 死角지대 비닐움막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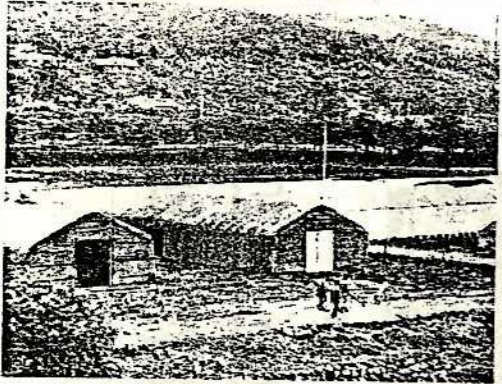
서울瑞草區 암산꽃마을 가다

주거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의 각 구·군에 걸쳐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면서 도시의 각 구·군에 걸쳐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면서 도시의 각 구·군에 걸쳐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철거지역서 밀려난 빈민모여 축솨같은 집 쓰레기 널려 악취

주민들 울기도 안봐 인제 또 쫓겨날지 불안

서울의 각 구·군에 걸쳐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면서 도시의 각 구·군에 걸쳐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면서 도시의 각 구·군에 걸쳐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瑞草區 암산꽃마을에 밀려난 빈민들이 모여 만든 비닐움막촌. 주민들은 울기도 안봐 인제 또 쫓겨날지 불안하다.



주거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의 각 구·군에 걸쳐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면서 도시의 각 구·군에 걸쳐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면서 도시의 각 구·군에 걸쳐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거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의 각 구·군에 걸쳐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면서 도시의 각 구·군에 걸쳐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면서 도시의 각 구·군에 걸쳐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수서·일원재개발지 주민들 시위 서울 강남구 수서·일원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비닐하우스 거주자 중 주민 8백여명은 26일 오후 2시에 강남구 수서동 지구 센터에 모여 주민 단합대회를 갖고 스님차능에게 근교에 있는 농사용 대토 제공 스서울시의 보상에서 제외된 무허가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 보상 및 이주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진정영 기자)

우면동 비닐촌 철거 착수 주민들 "보복이다" 항의농성

서울시정부는 21일 용역업체인 무항인력에 부탁, 철거를 막아주겠다고 철거민들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천5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안상삼(30)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0월 택지개발 예정지구인 서초구 우면동 암산마을의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에 자치회를 만든 뒤 같은해 11월초 철거민 김아무개(42·여)씨에게 "무항인력에 부탁해 철거당하지 않도록 주겠다"며 4백만원을 받은 뒤 비록 15명의 주민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아냈다는 것

이러며 "계약이 끝나는 오는 7월 말까지 계약 이전에 있었던 77가구를 제외한 2백51가구를 완전 철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허가 철거 막아준다" 교제비 2천만원 행거 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용역업체인 무항인력에 부탁, 철거를 막아주겠다고 철거민들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천5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안상삼(30)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0월 택지개발 예정지구인 서초구 우면동 암산마을의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에 자치회를 만든 뒤 같은해 11월초 철거민 김아무개(42·여)씨에게 "무항인력에 부탁해 철거당하지 않도록 주겠다"며 4백만원을 받은 뒤 비록 15명의 주민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아냈다는 것

철거민-경찰 충돌 16명 다쳐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190 평 화촌, 신가촌 등 무허가촌 주민과 서울시철거민협의회(서철협) 소속 회원 1백20여명은 16일 오후 3시에 송파구 가락본동 190 평 화촌 앞길에서 '영구임대주택 쟁취와 강제철거 결사반대 동부지역 단합대회'를 가진 뒤 소형 버스를 앞세우고 1백여m 떨어진 신가촌으로 행진하려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로 인해 주민 윤인심(53·여)씨가 경찰이 던진 유리병에 머리를 맞아 10여cm가 찢어지는 등 주민 10여명과 경찰 6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이날 진압과정에서 소형버스 유리창을 들과 헬멧으로 부수고 가정집과 부엌에까지 최루탄을 쏘았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17일 서철협 연대사업국장 원명희(36·행

상·동대문구 창신동 산1)씨 등 5명을 연행, 조사중이다.

철거민협의회 실무자 구속 거리행진 막는 전경 때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서울시 철거민 협의회 동부지역 실무책임자 정어중(23·무직·성동구 용답동 9-23)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0 평 화촌 재개발지역 앞길에서 '임대주택쟁취와 강제철거 결사반대 동부지역 단합대회'를 가진 뒤 주민들과 거리행진을 벌이다 이를 저지하는 한중수씨 등 전투경찰 3명에게 각목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이다.

4 한겨레.
'89. 4. 18

4 한겨레.
'89. 4. 19

제8장 1990년-93년

1. 노량진 본동

1) 지역 개요

노량진 본동은 1989년 6월29일 재개발지구로 확정된 이래 본격적인 철거는 90년부터 단행되었다. 특히 1990년 10월18일의 제1차 강제철거는 오전 9시에 공권력과 철거반원 등 300여명에 의해 폭행과 함께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세입자대책위 부녀회장 박복란(여, 60세) 할머니와 세입자 60여명이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흥분한 세입자 150여명이 구청앞에 물려가 항의 농성을 벌였으나 이 과정에서 다시 구청 직원들에 의해 1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때 주민대표 5명이 동작구청 주택과장과 면담을 하였는데 이들의 요구사항이던 가수용시설 설치와 영구임대주택 보장을 위한 공중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10월28일 세입자 전체 단합대회가 500여명의 세입자와 주거연합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당시 주거연합 공동의장이던 제정구, 김진홍씨 등이 초청연사로 참석하였다. 대회 종료후 시가행진을 하고, 당시 민자당 최고위원인 김영삼씨 집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2) 일지

1989.6.29 : 재개발지구 확정.

1990년

.10.18 : 제1차 강제철거, 전경과 철거반원 300여명이 투입된 강제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 60여명 부상.

.10.28 : 제1차 세입자 전체 단합대회.

.11.11 : 철거반원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동네에 와서 불지르고 감.

.11.25 제2차 세입자 전체 단합대회.

.11.26 : 세입자 10여명에게 경찰에서 출두 요구서.

- .11.27 : 고소 취하건으로 80여명이 조합에서 농성하다 노량진 경찰서에 26명 연행.
- .11.30 : 4명 구속(서승관, 임귀남, 이상업, 김문숙).
- .12.9 : 노량진2동에서 세입자 김효순씨가 강제철거에 비판하여 목 매달아 자살한 사건 발생.
- .12.25 : 오후 3시에 "구속 동지 석방을 위한 박형규목사 초청 성탄예배".
- .12.27 : 새마을 취로사업 반장인 송봉용씨가 빨리 집을 비우라는 집주인의 독촉에 고민하다 쓰러져 끝내 사망.
- .12.31 : 제2차 강제철거 자행, 포크레인과 철거반원 500여명이 무자비하게 부수고 있는 것을 막다가 주거연합 회원과 세입자 150여명이 한강대교에서 강제철거 중지를 요구하며 점거농성 벌임.

3) 관련 자료

- 노량진본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임대주택 보장없이 강제철거 웬말이냐!, 1990.10.18.
- 노량진2-2지구 세입자대책위원회, 노량진 산동네 소식, 1990.11.25.
- 노량진2-2지구 세입자 주민일동, 성명서, 1990.12.25.
- 노량진 본동 세입자 50여명 "철거 중단" 한강교서 시위, 한겨레신문(91.1.1일자).
- 노량진 세입자대책위원회, 노량진 산동네 투쟁소식, 1991.1.4.



서울 노량진 재개발지역 철거민·세입자 등 2백여명이 성탄절인 25일 오후 철거지역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노천성탄예배'를 갖고 있다. <곽윤섭 기자>

“낮은 데로 임하소서”

90.12.26

노량진·서초동꽃마을 철거민 성탄예배

이제 앞서 성탄 전야인 24일 오후 9시30분 서초구 서초동 꽃마을 비닐하우스촌에서는 경제정의실천 기독교학생청년협의회가 마련한 '도시빈민과 함께 하는 성탄예배'가 철거민·학생 등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성탄'의 의미를 되새겼다. 호화로운 성탄트리와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싸늘한 겨울 바람속에 진행된 이날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 '불안한 안식처'를 꿈꾸는 도시빈민들과 '예수 참 사랑'의 의미를 드높이려는 목회자·대학생 등의 조출한 합동예배가 성탄절을 맞아 서울시내 곳곳에서 열렸다. 25일 오후 3시 동작구 노량진본동 214-80 일대 노량진 2지구 재개발지역 달동네에서는 훗날 리는 젊은 눈발 속에 기독교도

고 있다. 세입자들은 주택조합쪽에 △세입자용으로 건축되는 14평형 아파트 입주권 제공 △아파트 건축에 소요되는 3~4년 동안 세입자를 위해 1천만원의 전세비용 지원 등을 요구해왔으나 아직까지 어떤 보장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지난 10월18일 강제철거를 막는 과정에서 세입자

이에 앞서 성탄 전야인 24일 오후 9시30분 서초구 서초동 꽃마을 비닐하우스촌에서는 경제정의실천 기독교학생청년협의회가 마련한 '도시빈민과 함께 하는 성탄예배'가 철거민·학생 등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성탄'의 의미를 되새겼다. 호화로운 성탄트리와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싸늘한 겨울 바람속에 진행된 이날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 '불

대책없는 철거...삶터 지키기 힘겨운 싸움

“부자 욕심 그치고 강한자 압제가 끝나길”

시민민선교협의회와 노량진본동 세입자대책위원회가 연 '노량진 철거민을 위한 성탄예배'가 세입자·신도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해 3월 재개발주택조합이 결성된 뒤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된 이 지역에서는 현재 3백22가구 1천2백여 주민들이 삶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60여명이 부상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서승관(27)씨 등 4명이 업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가난한 이들을 위해 2천년 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의 모습을 쓰레기 더미처럼 흩어진 가재도구 속에서 본다"며 "참된 사랑과 평동이 구속자·철거민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했다."

편하지만 부끄러운 것이 아닌 가난을 함께 나누자고 다짐했다. 2시간 동안 계속된 이날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부자의 욕심이 그치고 강한 자의 압제가 소멸돼 사람들 사이에 쌓인 답이 헐리고 싸움과 전쟁이 그쳐 악인의 가슴에서 사람이 싹트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도했다.

<박찬수 정재권 기자>

노량진 2-2 재개발지구사업에 의해 희생당 하신 고 이종화 형제의 참가 명부를 합니다.

-- 간접 살인행위, 노량진 주민은 분노한다 !!! --

푸르른 오월입니다. 그러나 올해 오월은 지난달 고 강경대열사의 쇠파이프 구타사
건에 의해 이어 젊은 목숨들이 처절하게 이 시대 어둠속에 불꽃으로 타오르다 죽어갔
습니다.

한편 부의 편중은 심화되고 민중생존권이 압살당하여 신음하는 우리사회 이시대의
오월에,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개발정책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 그 뒤를 잇고 있습
니다. 5월15일, 합동재개발사건이 시행되고있는 노량진에서 보증금50만원에 4만원씩의
월세를 내고 세자녀를 돌보며 박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온 고 이종화씨가 39세의 한말은
성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고 이종화씨는 주민 특히 세입자주민의 동의, 의견수렴, 협의
과정없이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정된 소위 노량진 달동네에서 철거의 위협속에
시달려 왔습니다.

가옥주는 5개월전서부터 권기와 수도를 끊고 이주할것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10일, 조합측과 가옥주가 뚜렷한 주거해결 방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권
변철거를 강요하였으며 더구나 가옥주는 재산세가지도 전부 납부하라고 하였습니다.
세자녀와 더불어 극히 어려운 살림을 꾸려오던 상황에서 앞으로의 생활을 고민하며
5 밀간 식음을 전폐한채 괴로움에 시달렸다 합니다. 고 이종화씨의 죽음은 단순한 개
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는 반민중적 개발정책과 그것을 잘못 시행한 사업시행사들에
의한 자명한 살인행위인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시행에있어서 행정은 주민을 위한 지도와 통제는 하지않고 선대책 후
철거를 주장하는 영세세입자의 터전을 공권력으로 파괴할뿐입니다.

지역주민들을 몰아내고 투기적이온을 추구하기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재개발조합측은
지역의 오랜 이웃이었던 가옥주와 세입자간의 가난하지만 인경으로 멀브러져 살아온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무참히 파괴시키는 반도덕적인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실정입니
다.

이에 개발지역에서는 계속 주거의 고통, 철거의 위협속에서 자살과 총격의 죽음이 이
어지고 있습니다.

월계동 택지개발지구에서는 5월11일,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주거문제를 비관해오던
이시현씨(46세, 남)가 목매어 자살하였습니다. 생보자용 영구임대주택이 주어진다
는 통보를 받고도 보증금을 낼돈이 없어 포기하게되고 앞으로의 막막한 주거대책에 괴로
와 하다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또 4월, 수서택지개발지구에서도 유성규(49세, 남)가 철거계고장이 지역에 둘러지는
것을 보고 한 가정이 충격으로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시대에 죽음을 부추키는 세력이 있다는 모태학 총장의 발언을 인용한다면 바로
그러한 세력은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사회구조, 투기적인 개발정책, 폭압적 정책시
행의 전 과정들인것입니다.

고 강경대열사를 살해한 쇠파이프는 바로 철거현장을 내리치던 철거쇠파이프입니다.
국민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를 억압, 밟살하고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자 반영입니
다.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보상으로 영구임대주택이 주어진다고는 하지만 대상자로서 몇
평에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얼마이고 입주날짜는 언제인지 아무런 구체적 내용도 모른
채 강제철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시기까지 2년여 기간동안 전월세폭동에의해
방만한 구하기 힘든 현실로 심각한 주거위협을 받게됩니다. 당연히 주민들을 위한 임
시이주거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주거권 요구로써 지역내 한부분에 가건물을
지어 임시주거를 보장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져야합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야 합니다. 시행과정에서 행정적인 지도하에 적법하게 이행될때 무조건 철거로 인해
생존을 담보한 저절할 싸움은 끝날 것입니다.

주거문제로 인한 가난한 우리들의 깊은 한이 풀려지는 바로 그날까지 노량진세입자
및 각 개발지역 주민들은 끝까지 정당한 요구를 위해 단결하고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 이종화씨의 명부를 합니다.

간접살인 책임자 처벌 조합측은 각성하라!
대책없는 개발정책 현지주민 다죽인다!
주민살해 개발시행 세입자는 분노한다!
가수용을 경위하여 주민생존 보장받자!

1991년 5월 19일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노량진 세입자대책위원회

사랑하는 우리 동지 투쟁으로 구출하자!

노량진 산동네 투쟁소식

1991. 1. 4

가수용과 영구 임대 주택 공증을 확실하게 쟁취하자!

노량진 세입자 대책위

전화 823 - 3359

10월 18일의 그 끔찍한 강제 철거의 현장에서 우리 이웃들이 피 터지게 얻어 맞은 장면을 찍어대는 노량진 정보와 형사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신이 누군데 사진을 찍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경찰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철거장폐쇄에 맞아 부상 당하면 철거장폐쇄를 구속할 증거로 사진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우리 세입자들뿐 아니라 그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그 사진은 모 세입자 심어넣을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하고 내일을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과 구청장, 재개발 사업에서 이득을 본 자들은 강제 철거의 현장에서 사복입은 정보와 형사가 무전기로 시시이게 모습을 보냈지요. 우리 주민들이 철거장폐쇄에 얻어맞고 피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비추었고 바라보던 정보와 형사의 뒤통스런 수직을 보았습니다.

세입자 여러분!

경찰은 우리의 정당한 생존권 쟁취를 위한 이 작은 투쟁을 공무집행방해, 집시, 폭력이라며 출두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세입자 80여명이 강제철거 중지하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조학사무실 접거농성을 벌이다 전경 수백명이 투입되어 무차별한 구타와 함께 26명을 연행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연행된 26명중 서승환 등 4명을 연행한지 3일만에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연행한지 48시간이 훨씬 지난 11월 30일 자공압으로 고생하는 아줌마 철거민이 아이를 팔면 아줌마까지 구속하는 파렴치한것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세입자 250여명이 경찰서앞으로 항의농성을 갔을 때 경찰은 연행된 사람 전원을 석방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어려운 경찰은 말로는 연행자를 석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승환, 임귀남, 이상업, 김문숙 이 4명의 우리의 동지들이 아직도 가수용과 영구 임대 주택 쟁취의 선봉에서 싸우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벌써 해를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청과 조합에선 말로만 영구 임대 주택을 살대니 나가라고 세입자들을 기만하는 쪽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영구 임대 아파트, 허공중에 떠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홍은동의 여에서 본바와 같이 가수용과 영구 임대 아파트 공증을 확실하게 쟁취하고 사랑하는 우리 동지를 투쟁으로 구출합시다.

자! 어려운 서 승환씨가 즐거하던 "옥" 도 해보고 "투쟁, 투쟁, 단결 투쟁"도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우리의 구호

사랑하는 우리 동지 투쟁으로 구출하자!!!

세입자를 기만하는 구청과 노량진 경찰서는 각성하라!!!

가수용과 영구 임대 주택 공증을 확실하게 쟁취하자!!!

세입자를 탄압하는 건영 건설 박살내자!!!



'진짜 투가꾼' 이 사람들



이건희 심영 정주영 현대 김우중 대우

임대주택 보장없이 강제철거 웬말이냐!!!
"노량진 2-2 재개발지구 불법 철거사태를 고발한다!"

지난 10월 18일 전경 2개 중대 300여명이 아무런 예고 없이 노량진 재개발지역 골목골목을 둘러싼 재 현지 주민들조차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조직폭력배들을 연상케 하는 철거반 200여명이 동네 빈집을 철거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집까지 마구잡이로 철거하기 시작했다.

더우기 이 중에는 노량진 경찰서 소속 형사 수명이 섞여 있어 이들의 철거를 비호하였다. 이 과정에서 철거반원들은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철거에 항의하는 주민은 물론 출근하는 주민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세입자 대책위원회 부녀회장 박복란(여, 60세) 할머니를 폭행, 기절케 하는 등 동네 주민 10여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이같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해 강제철거에 항의하기 위하여 주민 150여명은 동작구청 정문 앞에 모여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던 중 구청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떼밀리어 또다시 1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결국 이 와중에서 5명의 세입자 대표들이 구청 주택과장(박대현)을 면담하여 우리 세입자들의 요구인 '가수용 시설',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청은 세입자 요구조건은 전혀 들어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만을 계속하였다.

한편 작년 5월 이후 정부 발표에 의해 세입자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을 보장하게 되어 있는 재개발사업 시행지침이 입면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개발조합에서는 임대주택 입주권은 커녕 아무런 공산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번호표"만을 이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주겠다고 공언함으로써 결국 영구임대주택을 갖지 않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수용시설과 공증을 통한 임대주택 입주보장"도 없이 자행되고 있는 이같은 강제철거는 명백한 불법이며, 더우기 세입자와 재개발조합 측과의 최소 합의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행되는 파렴치한 공권력 투입 역시 더더욱 불법임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가수용시설 및 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공산력"있는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한 어떠한 불법철거도 인정치 않을 것이며 우리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모든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1. 선입주 후철거를 보장하라! 1. 가수용을 쟁취하여 임대주택 보장받자!
- 1. 번호표는 필요없다 가수용시설 보장하라! 1. 개발지역 연대하여 주거권을 보장받자!
- 1. 개발지역 연대하여 주거권을 보장받자!

노량진 본동 세입자 단합대회 및 공권력 철거규탄대회

약도

대회순서: 1부 - 규탄대회(연사: 제정구, 장기표, 김진홍)
2부 - 평화대행진
3부 - 대중놀이

일시: 1990년 10월 28일 오후 2시
장소: 세입자 사무실 앞 공터
주관: 노량진 본동 2-2지구 세입자 대책위원회(전화: 817-8705)
주최: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722-2559)

1990년 10월 18일

노량진본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가수용과
확실하게

선입주를
보장하라

노량진 산동네 투쟁소식

노량진 세입자 대책위
TEL. 823-3359

1991년 12월 27일

1989년 6월 29일 본동 2-2자구가 재개발 자구로 확정되어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우리 지역은 엄청난 변화 속에 집값은 상상할수 없을만큼 끈폭으로 뛰고 율해들어 폭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구조로 인해 집값 전·월세 값이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에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량진 세입자들은 전·월세 보증금 까지도 거의 다 까먹고 있는 현재에 갈곳이 없어 큰시련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세입자들은 나날이 단행되는 강제철거 위기속에서 전기와 수도도 끊기고 길마저도 막혀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쳐서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자들은 구청장 앞으로 임시로 거주할곳을 마련하여 달라고 건의서를 수차 보내었고 면담도 요청했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조합에 가서 우리의 요구조건(가수용)을 외쳐 보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만 단아와 들뜬 분위지만 우리는 좁고 배고픈 동절기를 맞이하여 어린자식들과 노부나님들을 믿고 갈곳이 없기에 우리의 요구조건인 가이주단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모든 분들에게 알리으며 호소하는 바입니다.

구 호

대책 없는 강제철거
즉각 중단하라!
세입자에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라!
노량진 주민 단결하여
가수용을 쟁취하자!

2. 구로6동

1) 지역 개요

행정구역상으로는 구로구 구로6동 124번지이다. 이곳은 1986년 7월28일 주택개발 재개발 사업 결정고시가 떨어진 합동재개발 지역이다. 따라서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86년 4월 28일 이전에 입주한 세입자에게는 방 1칸 분양권이 나오는 것이다.

조합측은 86년 7월28일 결정고시일로부터 88년 7월까지 만 2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연기했으며, 88년 7월 지역방문 조사를 시작하면서 세입자 중 해당자와 미해당자를 분리 조사하였다. 문제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연기해 온 2년 동안 유자격 세입자(일명 해당자)를 내쫓아오며, 그 방을 다시 세를 놓음으로써 많은 세입자들을 미해당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되자 조합측은 89년 4월28일 세입자 대책이 보장되는 입주일을 86년 11월28일 이전 입주한 세입자까지로 연기하였다. 물론 이 기간에 해당되는 세입자는 거의 없었다.

재개발 사업 시행이 인가되면서 전월세값이 엄청나게 뛰어 올라 별도의 대책이 없으면 구로 6동 세입자들은 생존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다. 이에 구로 6동의 요구는 이러했다.

- 1) 해당자, 미해당자의 구분을 없애라.
- 2) 영구임대주택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 3) 최소한 보장되어 있는 7평 단독 아파트라도 확실하게 보장하라.
- 4) 강제철거를 중단하라.

2) 관련 자료

- 김영기, 「구로공단인근의 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거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2.
- 구로6동 재개발지역 세입자 일동, '진정서', 1990.
- 구로6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진정서, 1990.3.23.

- 유인물 및 기타
- 구로6동 세입자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 모임, 구로6동 세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 구로6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일동, 서철협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구로6동 세입자대책위원회, 구로6동 세입자분들께 알립니다, 1989.4.10.
- 생존권을 위해 노력하는 세입자 일동, 구로 6동 세입자 여러분!
- 구로 6동 세입자 대책위원회 일동, 알림, 1990.2.
- 구로 세입자 대책위원회, 호소문 '철거반원 여러분'

세입자 단결 및 재개발 추방대회

구로6동 4지구 세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우리지역에도 세대위원 구성하여 열심히 싸워왔읍니다
 지금까지 조용한듯 했으나 4월경이들어 재개발쪽에서 드디어 모임을 틀어치고 가우주의 세대간의 위간결을 하고있읍니다
 우리는 이어삼 우리의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될것이며 우리의 일대주력을 생취하기 위해서 단결 및 재개발 추방대회를 5월 8
 오전 11시 오후 2시 하오 세아음극장 옆 공터에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후원 : 서울시 철거민 권익회
 추연운동 구로지구
 천주교 토지 반민회

구로6동 4지구 세입자 대책위원회

구로6동 세입자 어서본께 드리는 글

!!! 우리의 생존권을 되찾읍시다 !!!

세입자 어서본 1

합동만 들어왔던 제계밭이 우리 동네에서도 시작되어 어느덧 30여 개구가 걸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계밭은 본래의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입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채 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찾아 나가는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까운 구로3동 푸암동네의 경우만 보아도 우리들의 생존권은 우리의 싸움을 통해서만 찾아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제계밭은 도시환경 정비라는 명목 하에 진행됩니다. 그러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존권입니다. 생존권을 짓밟는 환경미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시빈민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사회정책의 산물입니다. 더 이상 그곳이 없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도시빈민의 생존권을 소외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우리의 최소한의 생존권 요구입니다. 구경도 아니고, 참치한 것도 아닙니다. 공짜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부인과 투기꾼의 막대한 이익만 쫓아도 가능한 것입니다.

((본양권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합에서는 단지(본양권)를 이용해 우리들 이간질시킵니다. 딱지 한 장에 우리의 생존권을 내달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단결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딱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딱지 한 장이면 다른 데로 이사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동중 70-80% 이상의 사람들이 다른 제계밭 지역이나 시골로 이주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구로3동의 경우만 보십시오. 딱지는 빈민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만이 우리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임대주택입니다.

구로3동의 경우만 하더라도 제계밭은 총액 18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이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이 지역 주민들보다 우적 세입자들도 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제계밭이 우리의 삶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원주민의 본양권 반환은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도시 생활기반을 찾아 나가는 데도 정부적으러치고 우리는 또 빈민층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딱지조차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 나앉거나 투기꾼과 다른 제계밭 지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안습한이 계속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볼거 다닐 수 없습니다. 수산의 원에 달하는 제계밭 이익금 중 조금만 우리에게 주어 적어도 우리의 삶은 보장됩니다. 임대주택은 이런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최후적 아닙니다.))

정부와 제계밭조합, 주택개발과 관계들이 증대된 강제적거에 대항하여 안락함이 사라진 영세층으로 서울시 철거민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구 지역의 세입자대책위원회와 더불어 구민운동본부, 천주교도시빈민회, 구 학생단체의 지원으로 우리는 외롭지 않으며 힘이 부추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이주비와 본양권이 개인적인 술책인 것은 사실이나 그것조차도 저들이 거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에 의해 얻어진 것입니다. 또한 구 연박과 이주비를 물리치고 단결, 투쟁한 영세층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관심은 있으나 함께 하기가 망설여 지십니까?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망설여 지십니까? 앉아서서 싸우기가 겁나십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겨워 할 무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받을 혜택이 없습니다. 혼자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진 것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는 단결, 단결밖에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움직이십시오. 더 이상 미루기만 할 수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잘나고 못나고 가 없습니다. 누가 용기 있고 없고 없습니다. 오로지 단결, 투쟁 승리가 있습니다. 양쪽은 단결도 임대주택을 쟁취하십시오. 우리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십시오.

구로6동 세입자 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 모임

모시는 글

서철협 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하시는 일 모두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우리들의 노랫말처럼 복부인들 환장하고 철거깡패들이 발광하며 가진자들 편에서 자기네들 정권유지에 급급하며 짓밟고 탄압했던 공권력에 우리의 주장을 외치며 의연하고 끈기있게 투쟁해 왔습니다.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하는 90년대의 첫해인 199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못배우고 가진것없는 우리네 철거민은 밝은 내일을 설계하기 전에 올 한해도 우리들의 정당한 외침을 불법 운운하며 강력한 공권력 투입으로 탄압할 것은 불을보듯 뻔한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우리 구로6동에서도 작년 하반기 구로 3동, 신림 2동 강제철거 이후 예를 들어가며 공갈과 협박을 일삼으며 주민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집달리가 들어오고 있고 날이 해동하면 저들은 더욱 더 노골적으로 공갈과 협박을 할것이며 주민을 이간질 시킬것이 예상된바 흐트러진 주민의 마음을 결집하고 우리의 단결된 힘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되며 시기적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형제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주민연합대회를 3월 3일 (췌요일) 오후 2시에 열고자 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따뜻한 형제애를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차: 2호선 내림 정철역 앞

구로 6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일동

- *** 전빈연 깃발아래 생존권을 쟁취하자!
- *** 서철협 깃발아래 임대주택 쟁취하자!
- *** 살인적인 폭력철거 운운으로 저지하자!

구로 6동 세입자 분들께 알립니다.

이번 우리 지역에서 열려자 하던 4월 13일 주단 대회는 지역 사정으로 구로 3동에서 관할 회를 하오니 4월 13일 오전 11시 30분까지 3동 세입자 사무실 앞으로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3동에서 관할 회를 하고 우리 구로 6동 까지 가두 평화 시위를 하오니 우리 세입자 분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우리의 뜻은 임대 주택입니다. 우리의 권리는 꼭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세입자 분들께서는 한발짝도 물러 서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꼭 우리의 집 임대 주택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금 자리를 강철 같은 단결로 지켜 씬사.

” 우리 구로 6동 지역 연합 대회는 우리 지역 상황을 지켜 보면서 이달중 날짜를 정하게오니 더욱 세입자 분들은 똑똑 문체 임대 주택 성취 하는 그날까지 문체 바랍니다.

구로 6동 세입자 대책 위원회

1989. 4. 10

알 린

서철형 형제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틀 한해도 하시는 일 모두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우리들의 노랫말처럼, 목우인들 한강하고 철거 깡패들이 발광하며, 가진자들 현에서 자기네들 정권 유지에 집중하며, 실속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우리 도시 민인들의 생존권보장 투쟁을 무차별하게 짓밟고 탄압했던 공천력에, 우리의 주장을 외치며 외면하고 골똥하게 투쟁해 왔습니다. 대량의 거시기를 준비하는 90년대 첫 해인 199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물배우로 가진것 없는 우리네 철거민은 밝은 내일을 설계하기 전에 을 한해도 우리들의 정당한 외침을 문범 운동하며 강력한 공천력 투쟁으로 탄압할것은 물을 보듯 반한바 걱정이 많 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만 하고 있다는 해사 우리의 생존권이 보장 되는것은 아닐 습니다. 우리 구로 6동에서도 작년 하반기 구로 3동 신림 2동 강제철거 이후 세를 들어가며 농갈라 협박을 일삼으며 주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모조음은 잠달리가 들어오고 있고 날이 해동하면 저들은 타우터 노골적으로 공판과 협박을 할것이며 주민을 이간질 시킬것이며 세심한바 흐트러진 주민의 마음을 결집하고 우리의 단결된 힘을 저들에게 보여 주어야 되며 시기적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형제 여러분들은 모신 가운데 주민 연합대회를 그월 2일(일요일) 오후 2시에 연근라 하오니 꼭 참석 하시어 따뜻한 형제애를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로 6동 세입자 대책 위원회 앞동

- 1. 전번에 것발 아래 생존권을 쟁취하자
- 1. 서철형 것발 아래 임대주택 쟁취하자
- 1. 살인적인 폭력철거 운동으로 지지하자

3. 도봉동 제1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1) 지역 개요

지구지정 최초 입안공고일은 1989년 8월15일이고,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일은 1991년 5월13일이다. 이 지역은 사업계획과 동시에 가이주단지(노원구 창4동에 6평짜리 임시가옥 1,218세대 건립)하여 선입주 후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세입자중 공공임대아파트 해당자의 기준을 지구지정 최초 입안공고일 3개월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 정하여 미 해당자가 많게되자 주민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며 구청 및 지역 농성 등을 벌이며 철거를 막고 장기간 조직적 대응을 하였다. 이 결과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일(1991.5.13) 3개월전(2.13)에 주민등록을 당해 지역에 두고 있는 주민으로까지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를 확대하였다. 또한 "기준일인 1991년 2월13일부터 보상협의 개시일(1992년 6월26일)까지 당해 지구안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하는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 2인 이상의 무주택 세대, 다만 호적등본으로 확인된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 규정의 소득이 있는 세대 ① 소년소녀가장, 형제자매세대 ② 이혼모가 직계 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도 포함되었다.

2) 관련 자료

- 재개발지구 사례조사 내용: 하왕2-1, 금호6, 봉천6동 7-1지구, 신림10동 2-1, 도봉동 제1지구, 구로3동 1지구, 개포동 구룡마을, 서초동 군부대앞 등의 현황 조사 내용을 적은 글
- 도봉 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추진위원회, 주민소식, 1992.9.16.
-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북부지부, '집없는 이들과 함께 하는' 성탄 대축일 미사, 1992.12.25.

발행처:도봉 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추진위원회 발행일:1992년9월16일	<h1>주민소식 1호</h1>
<p>창간사</p> <p style="text-align: center;">- 주민소식지를 내면서 -</p> <p>도봉1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주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주민 홍보지를 발행하여 여러분이 궁금하고 답답해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제반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여러분이 앞세워준 추진위원들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p> <p>우리 주민은 다 같이 주거환경에 뜻을 모으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관주도를 배제하고, 우리 주민의 소리가 접목되어 우리 서민에게 피해없는 진정하고도 신뢰성 있는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같이 한 뜻이 되어 관계당국에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내 우리 주민들은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모든 일은 여러분이 내세운 공추진 위원들과 상의하고, 추진위원들은 우리 동리의 발전과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p> <p>또한 앞으로는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사업 및 동리의 일은 이 주민 소식지를 통하여 알려드릴 예정이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추진위 부위원장 김창수 드림 -</p> <p>※ 알려드립니다. 그 동안 꾸려졌던 주민대책위원회와 노촌식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던 전 추진위원들이 지난 8월 25일자로 일괄 사표를 내고 새로이 대책위 위원장이었던 강동범씨를 중심으로 새로운 추진위가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에서 있었던 일-</p> <p>90.5.7.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92.6.26. 가옥주에 대한 보상금액 통지서 발송. 7.4-5.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모임. 약150명 참석. 통별로 모여 대책위를 꾸릴 수 있는 주민대표를 선출토록 하는데 합의. 7.7. 도개공, 도봉구청 주최로 성산교회에서 설명회 열림. 7.18. 독방에서 '주민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한 모임' 개최. '주민들께 드리는 건의서'를 읽고 같이 활동할 자원봉사자 모집. 7.19. 강동범씨를 위원장으로 추대. 각 통의 통책들을 선정. 통책들이 각 통마다 건의서에 대한 서명을 받기로 함. 7.23. 독방모임. 현재의 상황 설명. (주민의 연고권 무시, 실질적인 보상 없음, 세입자 7평형 비좁음, 미 해당 세입자 문제, 집에 대한 권리 포기 각서의 부당성등) 7.29. 국회의원, 시의원 초청 간담회. 주민의 요구 사항 전달. 8.4. 임종중 변호사 방문, 법적 대응책 질의 8.7. 1,184명 서명받은 진정서를 서울시장에게 보냄. 8.10.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보냄. 8.13. 각 당 총재에게 진정서를 보냄. 8.17. 통장 방문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 이후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 8.25. 통장 방문, 추진위에게 일괄 사표받고 대책위도 해체하여 새로운 추진위 구성에 합의 8.26. 위의 사실을 독방주민모임에서 주민에게 공표. 8.30-9.4. 각 통별로 여건에 따라 추진위 새로이 구성함. 9.7. 각 통별로 새로 구성된 추진위원들과 동장, 상견례. 새로운 위원장에 강동범(전 주민 대책위원장, 부위원장에 주재부 오룡이었던 김창수씨 선임.</p>

주민의 소리

-서울시와 도봉구청, 도시개발 공사에 바라며-

도봉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와 도봉구청은 주민들에게 사심대로 홍보를 하여 사업을 서로 원활하게 진행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불리한 점이 있어 이렇게 요구합니다.

첫번째, 서울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 동장님을 내세워 택지는 무상으로 주고 건축비는 타민영보다 싸게, 18평 아파트를 지어 준다는 말을 민방위 교육장에서 수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의 공람기간을 가졌는데 주민들은 언제 어떻게 했는지 대다수가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공람이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때, 현재사업은 거꾸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데도 이것을 소홀히 여겨, 관 주도 형식으로 선철거 후보장 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92년 6월 30일 도개공 재개발과에서 담당자 한 분이 나오셔서 공개적으로 성산교회에서 홍보용 팸플릿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보상비 수령(92. 8. 31) 창동 가이주단지 신청(92. 7. 30)대상자 신청(92. 10. 30)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서울시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개공에서는 창동 가이주 단지 입주후에 분양가를 알려 준다고 합니다. 그때 가서 만약에 분양가가 높고 임대료가 비싸면 우리 주민들은 품격없이 길거리로 나앉을 판입니다.

세번째, 보상비에 대해서입니다. 주민들은 보상비란 보상으로만 끝나야 할텐데 보상비 수령서 포기까지에 달인하여야만 수령되고 건물주는 평당 5,60만원대에 건물을 도개공의 소유재산으로 넘겨주니 이것은 매매형식이 취해진다고 하여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쩌하여 보상비란 말을 썼는지 알 수 없으며 이것은 도개공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아 더욱 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도개공이나 구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홍보 및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주민들이 뜻하는 바와는 달리 180도로 방향이 틀려 나가니 주민들 사이에는 더욱더 믿을 수 없다는 생각만 팽배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대응책 및 건의사항

1. 시행행장의 확실한 답변과 주민들과의 대화 및 설명회를 가져야 합니다.
2. 사업계획안을 공개해야 합니다. 도개공에서는 사업계획서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업계획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개선법 6조에 의하면 사업 계획서가 나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거쳐야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사업계획서를 알려지도 않고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법적 절차의 무시일 뿐 아니라

그 사업행위 자체는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3. 창동 가이주 단지로 떠나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입주권 보장을 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주민들의 청원사항

1. 분양가에 대하여

시행장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최대한 분양가를 낮춰야만 합니다. 현재 분양가 산출 방식은 택지비+건축비+제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비는 우리 주민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무상으로 주고 임대아파트 및 복지시설은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하면 우리 주민이 다같이 살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증평에 대하여

사람들의 1인당 생활공간은 3.5-4평을 필요로 합니다. 평균 식구가 4명이면 16평이 필요한데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임대아파트 7평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12평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십시오.

3. 미해당 세입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미해당 세입자 400여 세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세입자는 적어도 가옥주와 동일하게 평등권을 지켜 89년 8월 15일 이전까지는 구제되어야 하며 이후로 들어온 주민들은 사업시행실상을 알고 온 주민들로 사료되므로 시행장의 관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4. 선의의 피해자 및 단독세대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기에 청원하는 바, 우리 주민은 사업이 하루 속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창동 가이주 시설까지 만들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은 고무적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도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행장이 주민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여 추진다면 우리 주민들도 다같이 사업에 협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사업계획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데...

주거환경 개선법 6조 1항에 의하면 사업이 시행되려면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거쳐야지만 사업이 시행되도록 되어있다.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지만 주민은 제반사항을 검토,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떤지를 가늠할 것이고 도개공에서도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도개공 및 구청에 사업계획서가 언제 공포되는냐는 질문을 수차례 해왔고 마침내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유인태씨를 통해 사업계획을 알아보려 하였지만 국회의원에게조차 도개공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 서도 보상가 수령등지서 등의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도대체 사업계획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면 우리 주민들은 사업계획서가 나와 우리의 뜻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사업정지 가져본 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다. 또 만약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데도 공포하고 있지 않다면 국회의원 유인태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서울시 및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서 빨리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라!

알아봅시다.

(1)주거환경개선법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법은 89년 4월1일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지정되어 8월 10일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임시조치법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에는 두가지형태가 있는데 하나가 현지개발방식이고 다른 하나가 우리 동네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공동주택 건설이다. 주거환경 개선방식 이전의 재개발 형태는 합동재개발이다.

합동재개발이란 재개발지역의 돈있는 가옥주와 건설회사가 함께 조합을 형성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인데 모두가 30평 이상의 대형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었으므로(여기에서 돈있는 가옥주란 주로 부동산 업자를 앞세운 무기꾼)현지의 돈없는 가옥주나 세입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거리에 쫓겨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돈있는 무기꾼들을 위한 재개발에 반대하여 세입자 대책위가 꾸려지고, 이에 정부에서는 합동재개발을 폐지하고 세입자 문제를 포함한 주거환경 개선법을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산동네가 급속히 다세대(가구)주택단지로 바뀌고 있다. 단적인 예가 금북국고 아래 금호1가동 제2지구이다. 현지개발사업은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공동주택개발방식은 이제 신대방동이 착공되는데 보도외에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특히 국공유지 무단점유자가 많은 지역은 거의 요원해 보인다. 도봉1지구가 그 단적인 예인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거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대개 서울시 산하의 도시개발공사)에게 무상양여된다. 그런데 서울시가 마련한 국공유지 처분에 관한 규정을 보면 무단 점유자에게 별도의 보상이 없다.

예를들면 이런식이다. 어떤 무단 점유자가 있다고 치자. 그는 땅은 자기 것은 아니지만 집은 무허가상태로 대지에 올라있고 10년 이상을 그 집에서 살았다. 그런데 땅위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선 우선 비껴주어야 하고 철거를 하게 된다. 그는 다만 가옥에 대한 보상만을 받는다. 그리고 나중에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분양을 받을 때는 분양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분양가에는 당연히 토지가가 포함되어 있다. 즉 자가 점유하고 있던 땅을 아무 보상없이 내놓았다가 다

시 분양받을 때 들어갈 아파트에 해당하는 평수의 땅 값을 내고서야 비로소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사유지상의 가옥주는 땅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바로 여기서 무단 점유자들의 불만이 강하다. '저 사람이나 나나 한 동네에서 수십년을 살았는데 저이는 돈 몇푼 내고 불하를 받아서 땅이 등기되어 있고 나는 그때 불하를 안해줘서 못 받았다.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은 보상을 주고 나는 왜 아무 보상도 없느냐, 적어도 똑같은 보상을 못해줘도 점유권은 인정해 줘야 하지 않느냐, 점유권만큼의 보상은 적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한 푼 보상 없이 오히려 내가 이때껏 살던 땅을 새삼스럽게 다시 사라니 이게 무슨 말이나?'

또 현지개발 방식 지역과 비교해 보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거기선 국공유지를 점유권자에게 불하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 불하를 받아 완전한 자기 땅이 되고 여기선 반대로 고스란히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때까지 자기 집 갖고 잘 살던 집주인들이 집을 내주고는 다시 아파트(18평 미만)하나 얻자고 빚을 내야 할 판이 된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자.

지금 집값은 평당 400만원에 6평 잡으면 2,400만원이다. 여기서 만약 전세 400만원을 끼고 있었으면 우선 전세금을 빼줘야 하고 분양받을 때에 어렵잡아 평당 분양가 220만원에 17평(전용면적 12평)이면 3,740만원이니 총 4,140만원이 있어야 한다. 거기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융자금 1,200을 빼면 2,940만원이 필요하다.

집빼고는 이렇다고 할 가진 재산이 없는 대개의 빈민지역 가옥주가 이만한 돈이 어디에 있겠는가? 17평 짜리 아파트 하나 얻자고 자기집 갖다 바치고 3,000만원에 가까운 돈 들고 나중에 1,200만원까지도 갚아야 하는 이런... 이런 날벼락이다. 없는 사람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게 아니라 그나마 살릴 결단 날 사업이다. (서강대학교내 도시빈민 연구소 자료에서) 따라서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추진위 및 주민이 힘을 모아 올바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의 의견

"도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 마을 도봉2동을 두고서 하는 말이다. 동거주지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몇가지 문제점과 느낌을 피력하고자 조그마한 지면에 글을 게재한다.

모든 주민이 느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마을 재개발사업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가옥주는 가옥주 나름대로의 불만과 세입자는 세입자나름대로의 불만이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이 모두 우리 주민의 문제점이 아니겠는가?

먼저 가옥주는 주위의 많은 사람의 불만요소가 분양가를 낮추어야 한다는 소리가 지배적으로 높기만하다. 하지만 현재 정확한 사업 - 계획도 공고되지 않은 마당에 분양가를 낮추어야 하는 것은 알 수가 맞지 않는 소리이다. 단지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타당성 있게 외쳐야 할 부분은 서울 도시개발공사에서 2개 이상의 평가기관이 선정 발표한 "보상금" 운운하는 부분과 "임대아파트" 이다.

임대아파트는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세입자를 상대로 장사를 해먹는 부분이기때 공사비 내지는 분양가 결정에서 제외를 시켜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에는 진정으로 보상을 하려면 초기에 이곳 주민들에게 일률적으로 4명씩 지어주었으므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평수값을 받아야 타당한 일이다. 현재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첫째로 세입자의 가족 구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용 7평의 임대아파트이다.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이곳에서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성장하면 7평에서 생활하기 힘들다. 다른 곳의 임대아파트는 여러 평형이 있는데 이곳은 왜 큰 평수의 임대아파트는 짓지 않는가?

둘째로 현재 세입자의 도장이 없어도 도시개발공사는 가옥주가 보상금을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나온다고 한다. 그리하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과연 쉽게 받아 낼 수 있을까? 그저 자기들 편리할 때로 쉽게 사업을 하기 위해 이곳의 세입자의 사정을 무시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처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세째는 미해당 세입자의 거주문제이다. 세입자의 경우 89. 5. 15일 이전의 세대주로 못박고 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경우 대부분이 전세 보증금이 200 - 350만원이다. 이 돈을 가지고 이곳을 떠나면 과연 방한칸이라도 얻을 수 있겠는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가옥주는 89. 8. 15일 세입자는 89. 5. 15일의 3개월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잠으로 정부가 도시빈민을 위한 사업을 한다면 기준일 이후로 이주한 세입자들을 최대한 구제할 방안은 없는가 묻고 싶다. (15동 박 용 관)

- 보상금 수령 체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

요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건물보상비를 받아가라고 성파다. 만약 안받아가면 공탁에 걸어놓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협박이다. (공탁이란 도개공에서 보상금으로 내놓은 돈을 우리가 거부하여 받아가지 않을 경우, 도개공에서는 주민들이 돈을 찾아갈 때까지 다른 곳에 돈을 맡겨놓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보상금 결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자. (토지수용법에 의거함)

- ① 공공사업계획(우리동네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정되면,
- ② 보상대상물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 ③ 보상금이 결정되고
- ④ 보상협의를 이루어지고(우리동네로 보상금을 일괄적으로 통보받았음)
- ⑤ 계약체결이 된다.

만약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상호간 협의가 안될 경우 정부에서는 토지 수용령을 내리게 된다. (토지 수용법이란 상호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공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땅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결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다면 하더라도 보상금은 결국 우리의 돈이다.

제구성 추진위원 명단

동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10동	도봉동 90-100	이 정 자	904-8481
11동	90-177	박 용 운	999-9280
12동	90-212	이 명 진(총무)	999-9280
13동	90-368	유 영 자	905-1253
14동	91-25	이 인 혁	902-5382
15동	91-455	김 정 수	994-1022
16동	96-585	강 화 자	902-5445
17동	96-738	방 계 순	903-5770
18동	97-829	김 상 현	903-1491
19동	97-885	이 병 태	903-8712
20동	97-1019	김 산	997-5311
21동	98-1257	백 등 복	903-2692
22동	98-1220	김창수(부위원장)	908-8032
23동	102-159	장 용 순	992-0274
24동	103-37	강동범(위원장)	996-1107
25동	103-207	박 노 준	902-2027
26동	103-85	지 동 숙	902-4669

*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또 계획 추진위원들의 활동을 위하여 성금을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4. 상계동 1113번지

1) 지역 개요

상계 1113번지는 1989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 사업계획 결정을 받고, 이어 1991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곳에는 원래 가옥주 232세대, 세입자 198세대가 살고 있었다. 재개발 사업의 결과 이 곳에는 763세대분의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는 것이다.

가옥주들과 유자격 세입자들은 창동 주공 4단지에 있는 가이주단지으로 이주했으나, 남은 세입자 100여세대는 이주비 104,020원만 지급하고 철거하려 했다. 이에 1991년 12월8일 상계 1113번지에는 무대책 세입자 총회가 소집되어 임시 위원장에 이명규씨가 선출되었다. 이어 12월15일에 제2차 임시총회가 소집되었다.

12월21일. 밤 10시에 가옥주와 주공에서 일요일 아침에 공가철거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되었다. 50여명이 이에 대비한 준비를 하였다. 22일에 철거반의 진입 소식을 듣고 세대위에서 방송을 하여 일시에 170-180여명이 몰려가 공가철거를 막고, 이후에 조합사무실로 가서 공가철거에 항의하였다. 23일에는 주공 관계자가 세대위를 방문하여 공가철거의 당위성을 설명하자, 세입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회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25일에는 북부지역 철거민들과 같이 구청까지 행진하여 당직과장에게 구청장 면담의 약속을 받았다.

세입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선대책 후철거.
- 전입자와 동일한 임대 아파트와 1991년 12월 이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 상가 임대상가 및 상권보장.

2) 관련 자료

- 상계5-2지구 무대책철거 세입자 대책 위원회, 상계5-2지구 무대책철거 세입자 대책 위원회 규약, 1991
- 상계 1113번지 무주택 철거민 대책위원회, 회보, 1991.1.11(대책위 활동 보고서).

- 상계동 철거민, 1991년 지역대중활동총괄평가, 1992.1(91년도 상계동 대책위의 평가서로서 92년도 사업계획이 첨부되어 있다).
- 철도마을 세입자 대책위, 세입자사무실임원진, 1992(대책위의 임원진 연락처 수록).
- 대한주택공사, 상계 제5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규정, 1992.
- 대한주택공사, 상계 제5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규정(변경), 1992.
- 중-하계지역 2차사업지구 가옥주철거민 일동, 중-하계지역 2차 사업지구 보도자료, 1992.6.29.
- 상계동 철도마을 재개발 진통, 중앙일보, 1992.7.13
- 대한성공회 상계동 나눔의집, 함께 사는 삶, 1992.8
- 노원구 상계1동 1113번지 세입자 주민 150세대 일동, 노원구의회에 청원합니다, 1992.
- 북부지역주민협의회, 북부지역주민협의회 창립총회, 1992.10.1.
- 상계지역주민단체협의회 공정선거감시인단, 올바른 한표가 운명을 좌우합니다, 1992.
- 상계 3-5-7구역 재개발 구역 조서, 1993.

■ 유인물 및 기타

- 상계마을신문사, 상계마을신문, 1991-1992.
- 상계1동 1113번지 철도마을 세입자 대책위, 서울 시민에게 알립니다, 1992.4.19.



철거민과 함께하는 성탄 **도봉·노원·중랑 지역 철거민 2백여명이 25일 정오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중랑천 독방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기우 신부가 집전하는 '철거민과 함께하는 성탄 대축일미사'를 갖고 있다.** <임완호 기자>

"2천년 전 아기에수는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성스런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라면 험벗은 백성이 고통받는 자리에서 아픔을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인 25일 정오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085 중랑천 독방에서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도시빈민사목위원회가 도봉·노원구 등 서울 북부지역 일대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가진 '성탄 대축일미사'가 때아닌 곳은 비와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는 속에서도 철거민 평신도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집전됐다. 참가자 대부분은 올 하반기 들어 노원구 상계1동, 도봉구 3동 등해자 가옥주들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의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강제철거를 당한 세입자들이다. 현재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철거현장 주변 빈터에 천막 등으로 가건물을 지어 겨울을 나고 있다.

아기에수 탄생과 소외계층

미사를 집전하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도시빈민사목위원회 이기우(35) 신부의 강론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법도 국가도 모두 인간을 위해, 특히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살 곳 없어 몸부림치는 여가 이들에게 누가 '스스로 노력하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미사에 참석한 철거민 변용주(46·회사원)씨는 "철거를 당하고 난 뒤 느끼게 되는 삶에 대한 허탈감과 세상에 대한 배신감은 당사자들이 아닌 한 짐작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주신 분들의 축복에 정말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 신부는 강론이 끝난 뒤 "평소 소외계층의 어두운 삶의 구석을 거들며 보지도 않아 온 우리 교회와 사회 전체를 대신해 조금이나마 죄를 갚은 느낌"이라고 털어놓았다. <이강혁 기자>

5. 노원구 한내마을

1) 지역 개요

행정구역상으로는 노원구 하계 312번지와 중계 566번지가 속한다. 1984년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된 후, 1,200여 가구의 세입자 중 약 50%가 세입자에게 주어졌던 방 한 칸 입주권을 의지인에게 팔거나 이주 대책비를 받고 타지역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89년 5월 제도가 바뀐 이후 그때까지 남아있던 600가구에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져, 세입자들은 이를 신청했다.

1992년 10월7일 세대위와 조합, 그리고 구청측이 총 45가구의 가이주 시설 건립에 합의 하여, 1992년 10월17일 마지막 철거가 진행된 후 구청측이 하계 시영5단지내 공원부지를 제공하고 건설비용은 중고자재를 이용, 각 세대당 평균 200만원을 부담하고 그외 상수도, 전기 공급시설은 조합측이 부담하게 되었다.

2) 관련 자료

- 주거연합 북부지부, 구청장 면담 요청서, 1992.1.20.
- 미상, 노원구 한내마을 재개발지구 가이주 단지, 1993.

6. 중계1동, 상계1동

1) 지역 개요

1991년도에 상계 1동 1085번지에 두 차례의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1차 철거는 8월30일 오전 6시경 전경 1개 중대와 철거반원 70-80명 그리고 포크레인 1대가 동원되어 가옥 4채를 포함, 25세대를 철거했다. 이에 주민들은 구청으로 달려가 철거를 막아달라고 요구했지만, 구청장이 부재중이므로 오후 5시에 만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일단 자진 해산했다. 그 뒤 구청장과의 면담이 있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2차 철거는 9월29일 오전 10시정부터 시작되었다. 각 세대의 살림이 철거반원에 의해 중량천 쪽방으로 옮겨지고, 마지막 남은 10여세대와 천막에서 거주하던 25세대가 완전히 철거되고 말았던 것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구청측은 300만원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는 반응만을 보였다.

2) 관련 자료

- 중계동 48번지 외, 성명서-완전한 주거권 확보하여 생존권을 보장받자!, 1991.10.29.
- 중계동 48번지 철거대책위원회, 제2차 북부지역 주거권 확보 결의대회, 1991.11.29.
- 천주교 서울대교구 도시빈민 사무위원회-주거연합, '91년 철거민과 함께하는 성탄 대미사 보도자료, 1991.12.23.
- 주거연합북부지부, 구청장 면담 요청서, 1992.1.20.

7. 신정2동 6-1지구

1) 지역 개요

1989년 4월30일 합동재개발사업 결정고시, 1991년 4월19일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 신정6-1지구 세입자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영구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확실성 ② 영구임대주택의 정확한 평수와 구조, 그리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한 명확한 제시 ③ 지구내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 미해당자에 대한 대책 ④ 강제철거 금지 ⑤ 세입자 이주대책으로 나온 전세보증금에 대한 문제 ⑥ 임시 주거를 위한 가이주단지 보장.

2) 일지

1989.11. : 신정6-1, 6-2지구 통합 세대위 결성.

1990.3. : 신정6-1지구, 6-2지구 세대위로 분리.

1991년

9.10 : 1차 강제철거. 철거반원 400명과 전경 투입 - 주민 4명 부상. 경찰관이 옆에 있는 상황인데도 철거반원이 할머니 구타하여 실신시켰고, 병원 후송도 거부.

10.19 : 9월10일 철거과정에서의 상해자 보상문제로 조합측이 세대위로 협상을 요구. 그러나 조합은 협상기한을 넘기고도 협상에 임하지 않자 주민들은 항의농성 돌입. 이 때 지역에 상주하고 있던 철거반원들을 동원하여 주민들 집단 구타. 철거반원들은 부녀자의 옷을 벗기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등 추행. 주민 폭행으로 김분달씨의 4명 부상. 이후 철거반원 4-5명을 지역에 상주시키면서 욕설과 폭언으로 주민 협박과 위협.

11월 : 서철협 가입.

11.18 : 세대위 대표, 조합대표, 구청장, 양천구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신정6-1지구 세입자 이주대책 협상, 결렬. 당시 구청장은 91.12.1-92.2.29까지의 동절기 철거는 않겠다고 약속함.

1992년

1.7 : 동절기 강제철거 강행, 철거반원 500여명 투입. 강패들의 무차별 폭행으로 주민 대다수 전신 타박상, 이 중 7명 입원치료.

1.8 : 재개발조합에서 7일의 강제철거 과정에서 부상자 치료문제와 동절기 강제철거건으로 협상 하자고 요청함. 오전 10시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오후 3시로 미루고도 나타나지 않자 주민들은 재개발조합 사무실로 가기로 하고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 주민들이 재개발조합 사무실로 들어서자 대기하던 철거반원 50여 명이 소주병을 던지면서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둘러 주민들을 구타함. 출동한 경찰들이 옆에 있었으나 주민들이 실신한 상태에서도 구경만 함. 이양림씨가 갈비뼈 5대와 엉덩이 뼈가 부서지는 등 주민 8명이 실신하는 등 중상 입음. 이 사건후 기세를 얻은 철거반원들은 지역까지 들어와 눈에 보이는 주민들을 무조건 구타. 이양림씨등은 상해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개발조합의 탈법적 행위와 철거반원들의 폭력을 고소하였으나 남부지청은 불기소 처리.

1.9 : 오전 7시경 철거반원을 대동한 경찰청 소속 형사들이 총무와 조직부장 강제 연행.

1.15 : 200여명의 철거반원들이 지역에 난입. 주민들이 비상벨과 엠프시설을 보관하던 원종대씨 안방에 30여명이 들어와 구둣발과 몽둥이 등으로 집단 폭행.

1.17 : 10여명의 철거반원들이 오전 10시경 출근하던 고양재씨를 붙잡아 폭행 구타하여 실신시킴. 고양재씨의 정신이 들자 다시 구타한 후 무릎을 꿇리고 자기들이 휘두르던 쇠파이프를 들게 한 후 사진 촬영.

2.29 : 서충련 서부지구 학생들과 한물결 청년회에서 하루 빈민활동 실시

3.22 : 총선 유세장(목동아파트 파리공원)에서 지역 상황과 철거민의 요구를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던 주민들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5명 연행. 세대위 회장과 임원1인이 양천서로 항의방문하여 석방 요구하자 오히려 회장 연행 감금. 당일 오후 6시경 주민들이 양천서앞 항의농성에 돌입하자 80여명의 전경이 주민 강제 해산 및 11명의 주민 연행. 연행된 주민은 3일간의 구류처분으로 24일 석방.

4.3 : 대대적인 강제철거. 전경 7개 중대, 포크레인 8대, 철거반원 400여명 동원. 이날 대부분의 공가 완전 철거. 주민들의 지원요청에 따라 오전에 결합한 학생들 철거반원의 쇠파이프와 쇠스랑, 톱 등에 다침. 서강대 2년 김형기 학생 실신 입원. 주민 다수 부상. 철거반원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바로 옆의 6-2지구로 피신한 주민들을 계속 따라오며 구타하자 목동아파트 14단지 쪽으로 밀려남. 여기까지 따라온 철거반원들은 주민폭행에 항의하는 목동14단지 주민들도 무차별 구타. 박정선씨는 늑골 골절상(4주 진단)을, 14단지 테니스코치는 2차례의 뇌수술을 하는 등 중상.

4.9 : 주민 이춘복씨 연행. 지난 1월 7-8일 철거에 대한 구청 항의시 오몰투척 혐의 적용.

4.11 : 오전 10:30 사복경찰 50명이 봉고차 2대, 승용차 1대를 몰고 지역 난입, 복구해 놓은 세대위 기물을 파손하며 저항하는 주민들에게 쇠파이프와 가스총으로 위협. 규찰대장 오정섭씨와 주민 김해자씨를 찾으며 인근 지역 6-2지구까지 수색을 벌임. 수색에 실패하고는 비상벨을 울

린 주민을 '범인은너죄'로 강제 연행. 오후 9시30분경 다시 사복경찰 7명과 용역강패 10명이 주민총회 도중 지역에 난입하여 오정섭씨를 강제연행. 오정섭씨 폭행혐의로 구속됨(구속사유 철거반원이 오정섭씨에게 폭행당하여 12주 진단이 나왔다는 고소에 의한 것이라 함. 그러나 1월8일 오정섭씨는 철거반원들에게 집단구타 당하여 6주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며 이에 고소한 철거반원은 불기소 처리되는 형평에 어긋나는 법 적용을 드러냄).

4.30 : 『신정동 강제철거 저지와 영구임대주택 쟁취를 위한 대책회의』 주최로 "4.3철거규탄 및 철거용역반 해체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주민, 학생 등 300여명 참석. 결의대회 후 구청 항의 방문을 위해 오목교로 대열 이동하자 경찰청의 직접 지휘하에 전경, 백골단이 행진 차단. 약 2시간30분 이상을 경찰과 대치하며 도로 차단. 경찰이 대열을 에워싼 채 주민, 학생 37명을 강제 연행한 후 주민들을 뒤쫓아 지역 안까지 무장한 상태로 진입 주민들과 충돌. 이 과정에서 생후 14개월된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가 경찰들의 발에 밟힘. 연행되었던 주민과 학생 자정 이후 풀려남.

5.4 : 오전 7시 400여명의 철거반원들이 공가 철거의 명분으로 지역 난입. 최재식 회장의 잠적후 지도부로 역할 수행하던 김형균씨 연행되고 세대위 사무실 등 파괴됨.

5.11 : 오후 3시경 철거저지 바리케이트 철거 명목으로 경찰 1개 중대와 구청직원들 지역 진입. 저항하던 주민과 서철협 연대사업국 차장 등 6명 연행. 주민들 즉각적으로 양천경찰서 항의농성 돌입. 2차에 걸쳐 강제해산 당했으나 재차 집결하여 농성. 12일 새벽까지 농성하자 경찰측에선 철거반원 50여명을 지역으로 투입하여 경찰서 앞 농성 주민 해산 시도. 주민 5명은 풀려났으나 서철협 연사국 차장은 재조사.

6.9 : 신정6-1지구 대집행으로 지역 전면 철거.

오전 8:40경, 전경차 6대와 적준용역 지휘하에 철거반원 1000여명과 포크레인 7대가 일시에 지역으로 밀려 들어와 공가 철거와 주민이 기거하는 집에 들어가 짐을 꺼내기 시작. 주민들은 무조건 구타.

오전 11시경, 철거소식을 전해들은 서철협의 다른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왔으나, 전경과 철거반원에 막혀 진입을 못하자 인근 목동14단지로 집결.

오후 4:40경-6시경, 학생과 서철협 회원들이 동네쪽으로 이동하자, 철거반원들이 달려와서 구타. 학생들은 화염병을 투척. 일진일퇴의 공방

오후 7:30경 철거반원들이 철거를 마치고 철수하자, 학생들이 철거현장에 들어와 천막을 쳤.

오후 8시20분경 철거에 동원되었던 포크레인이 철수하려고 도로에 세워져 있었는데 원인 모를 화재로 포크레인 불탐.

6.10 : 오전 7시경, 철거잔재를 치울 계획으로 덤프트럭 12대와 철거반원을 실은 관광버스 2대가 왔으나, 주민들과 학생들의 동정을 살피고 돌아감.

오전 9시경, 비가 그치자 주민들은 기거할 천막을 만들. 천막설치 작업이 하루종일 계속됨. 철야했던 학생들 아직 짐을 꺼내지 못한 주민들의 짐을 뚝방위로 나르고 주민총회를 할 세대위 사무실 만들.

오후 9시경, 주민총회에 124세대 주민의 대부분이 참여. 앞으로의 계획논의.

6.12 : 오후 3시40분경-7시20분, 구청의 철거용역반과 적준개발, 그리고 전경1개 중대가 출동하여 천막 철거 시도. 주민들이 비상 소집되고 급하게 달려온 학생들이 철거를 막음. 그러나 천막 2동은 철거반원들이 석유를 붓고 불을 질러 전소됨.

6.18 : 오후 2시-7시, 『신정동 생가¹⁴ 강제철거 규탄 및 가수용시설 설치 촉구대회』를 양천서 앞에서 개최. 250명 참가. 신정 세대위 집행부 6명 구청장 면담 요구했으나 구청장 출타중이라 하여 도시정비국장과 면담.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고, 6월22일 세대위, 조합, 구청, 경찰서 등과 4차 면담 주선하겠다고 함.

6.22 : 세대위, 조합, 구청, 경찰측이 모여 회의. 세대위 요구사항에 대해 부정적. 가수용시설 절대 못해 준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장을 약속하는 세대위와 재개발조합과의 공중 거부. 이주대책으로 가수용시설 설치하는 불가하고 가옥 임차하는 방안 검토중이라는 종전의 입장고수.

6.30 : 새벽6시경, 바로 옆의 신정6-2지구 전면철거가 들어오면서 뚝방위에 처났던 천막을 또다시 철거 당함. 주민들은 지역밖으로 밀려나고 철거반원 상주. 이튿날까지 철야작업하며 철거잔재와 목재 등을 불태움. 철거반원들은 남자나 학생차림만 눈에 띄어도 위협, 폭행. 이에 무고하게 지나던 시민과 학생들이 전치2-3주의 부상을 입음.

7.1 : 지역접근이 불가능해지자 주민들 양천구청에서 농성하며 구청장 사과와 가수용시설 요구 농성. 주민2명(안경옥, 김진화)과 이태교 서철협 회장 연행되고 주민들은 전경차에 실려져 구로, 개포동 등으로 분산. 구청에서 철야 농성.

7.2 : 오전 10시에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세대위, 재개발조합, 경찰, 구청의 4자 회담. 회담 내용은 <가수용시설 설치와 연행자 석방 문제>, 회담 결과 공사 현장내 도로부지에 가수용시설 설치해서, 현재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지하주차장이 11월경 완공되면 가수용시설을 옮기기로 함. 연행자중 기소중지되었던 주민2명은 석방되고 이태교 회장만 구류3일 받음. 동사무소에서 임시 숙박장소 마련.

3) 관련 자료

- 신정6-1지구 세입자대책위원회, 신정6-1지구 재개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사항

14)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란 뜻

- 신정6-1지구 입주위, 신정6-1지구 주민학교 교육자료집
- 신정6-1지구 세입자대책위원회, 신정6-1지구 세대위 투쟁일지
- 신정6-1지구 세입자대책위원회, 질의서 '신정 6-1지구 주택개발재개발구역 가수용 시설 설치에 대한 질의, 1992.6.9.

0 "방귀"

"집 없는 서민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겁니까?"
 10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신정2동 144 일대 재개발지구.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신정지구재개발조합(조합장 서완석·60) 철거 용역회사인 적준개발 소속 철거반 1백20여명은 주민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지 골목마다 사람장벽으로 출입을 막고 공터에 합판으로 건물을 세운 뒤 철거민대책위원회 사무실부터 부엌이다.

팔을 쥐어 넘어뜨린 뒤 "삼으로 파묻어 버리겠다" "뺨아죽여 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퍼부으며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마구 때렸다. 실신한 이씨는 119구급차로 근처 홍익병원으로 실려갔다. 이춘자(64) 할머니도 철거민

오자 이 차의 통행도 막으며 "저 할머니 엄살피우는 거야" "죽게 내버려 둬"라며 30여분간 길바닥에 쓰러진 이씨를 그대로 방치했다.

주민들은 현장에 나온 경찰과 구청 직원들에게 "이런 무법천지를 팔짱만 끼고 볼거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경찰과 구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길 뿐

"집없는 서민에겐 법도 없나"

이때 철거하는 곳을 피해 시장가 가려던 주민 이정숙(41·여)씨가 철거반원들의 출입통제에 항의하자 철거반원 5~6명이 이씨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대책위 사무실이 있던 공터 앞 길을 뚫고 지나가려다 철거반원들에게 떠밀려 넘어졌다. 철거반원들은 이 할머니에게 "우리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며 폭언을 퍼부었다. 주민들의 신고로 119구급차가

이었다.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7만원으로 세식구가 살고 있다는 한 아주머니는 "경찰과 구청직원이 이런 폭력행사를 두고보지만 하면 도대체 우린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느냐"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상수 기자>

한겨레 9/11

철거반원이 시민 집단폭행 7.2.

신정2동서 적준개발 40명

서울 양천구 신정2동 재개발지역에 대한 무리한 강제철거로 말썽을 빚어온 경비용역업체 적준개발의 철거반원들이 재개발지역 부근을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들을 쇠파이프로 위협해 검문하고 이를 거부한 시민을 마구 때려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양천

구 신정2동 재개발지역 부근 안양천변 도로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마관신(35·약사·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355)씨가 철거지역 경비를 하고 있던 적준개발 철거반원 40여명에게 쇠파이프 등으로 온몸을 맞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경찰에 신고했다. 마씨에 따르면 이날 쇠파이프를 든 철거반원들이 지나가는 차량들을 세워 검문하는 광경을 보

고 검문을 피하기 위해 차를 후진하는데 철거반원 40여명이 몰려와 차를 둘러싼 뒤 쇠파이프로 승용차의 앞뒤 유리창을 깨고 폭언을 퍼부으며 마구 때렸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적준개발 철거반원 2백여명은 30일 오전 신정2동 재개발지역 철거로 집을 잃게 된 이 지역 세입자 1백여가구가 임시로 설치한 안양천변 독의 움막들을 모두 강제철거했다.



철거 설움 - 지난달 9일 철거됐던 서울 양천구 신림2동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의 임시거주지인 천막촌이 30일 또다시 철거당한 뒤 한 세입자가 도로 옆에서 저녁식사를 하다 한숨을 쉬고 있다. **한겨레 7.1** <곽운설 기자>



철거에 쫓긴 세입자 부부 - 16일 밤 금호3가 재개발지역 세입자 박명식(48)씨 부부 등 두 가족이 성동구청 민원실 밖에서 임대주택을 요구하며 지난 13일부터 4일째 한뼘잠을 사고 있다. 박씨 등은 지난해 7월 새들어 살던 집에서 강제철거당한 뒤 금호전철역 입구 옆 인도 등에 비닐천막 등을 치고 살다가 편승되는 구청쪽의 강제철거로 지금까지 7차에나 거처를 옮겨다녔다. **한겨레 7.10** <변재성 기자>

8. 신림10동 2-1지구

1) 지역 개요

1991년 5월17일,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설립 승인후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주공측은 당해 지역 바로 밑에 있는 339번지 택지개발지역(92.12.15 사업 승인)과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택지개발지역에는 재개발 철거세입자들의 이주용 임대주택을 지었다(순환재개발방식 도입).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주공 대신 현대건설로 사업자 지정을 요구하며, 별도의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진 선출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위원회를 고소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 관련 자료

- 대한주택공사, 신림 2-1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안), 1991.11.25.
- (가칭)신림 2-1구역 재개발수습대책위원회, 합동 재개발(민영), 1992.4.16.
- 신림 2-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설립위원회 위원장 이윤성, 안내말씀, 1992.4.18.
- 이윤성, 주민총회 및 설명회 개최안내, 1992.4.18.
- 지역사랑모임, 합실지역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통계 보고서, 1992.4.27.
- 도시빈민연구소 이태윤, 『현대』와 『주공』의 사업계획안 해설.
- 지역사랑소식, 지역사랑모임, 1992.5.1.
- 신림2-1구역 재개발조합설립위원회 운영위원 일동, 총회결과에 관한 안내말씀, 1992.5.
- 신림2-1구역 재개발조합설립위원회 위원일동, 재개발 촉진 주민동의 협조 안내문, 1992.9.
- 관악구청장, 민원발생에 따른 통보, 1992.9.16.
- 관악구청장, 임의단체 동의서 청구에 관한 질의회신, 1992.9.19.
- 세입자대책준비위원회, (가칭)신림 2-1 재개발 지구 세입자 대책 준비 위원회, 1992.
-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양교회, 함께하는 기쁨, 1993.

- 원불교 은혜의 집, 은혜의 집, 1993.7.2.
- 대한주택공사-도시빈민연구소 신명호, 「신림2-1재개발구역 주민등 주공의 사업참여를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수렴 및 계도를 위한 용역」, 1993.
- 낙골교회 나눔운동, 나눔마을, 1994-1996.
- 재개발 조합원 중 일부로 추정, 안내말씀
- 신림동의 한 철거주민, 우리는 누구입니까?

◆ 철거민 수용 아파트 먼저...새 「재개발사업」 각광 (동아일보-94/06/24)

재개발구역 부근에 별도의 아파트를 신설, 철거민들의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준 뒤 사업을 시행하는 「순환재개발」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원주민 이주비용 등의 문제로 20여년간 사업 시행이 지연돼 온 관악구 신림10동 328 신림2-1 재개발지구에 대해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결정키로 했다. 순환재개발은 철거후 영세가옥주와 세입자들이 거주할 공간을 확보, 이주대책과 관련된 민원소지를 없앤다는 점에서 도입여론이 높았지만 엄청난 선투자비용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가 엄두를 내지 못했다.

주공은 이 지구 동북쪽 신림10동 339, 8천2백여평에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 9백60가구를 내년 6월중 완공, 공사기간동안 철거민들을 이주시킨 상태에서 신림2-1지구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임대아파트는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영구임대아파트 등으로 분양된다.

신림2-1지구는 2만5천7백평의 부지에 ▼16평형 8백46가구(임대) ▼24평형 5백47가구 ▼32평형 6백64가구 ▼45평형 3백50가구 등 2천4백7단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그동안 사업시행자 선정을 둘러싼 주민들의 의견대립으로 진통을 겪어왔다.

지난 91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113 상계5-2 재개발지구의 경우 철거민 2백30여가구가 창동4단지 주공임대아파트에 임시로 입주, 재개발이 끝나는 올해 10월경 새 아파트로 옮길 예정이다.

또 지난 90년 6월 공사가 시작된 인천 동구 송현동 2의1일대 송허 거주환경개선지구 주민 1백86가구도 당시 미분양상태이던 만수동 장기임대아파트로 이주, 지난해 5월까지 임시로 거주했었다.

주공관계자는 「이주비액을 둘러싸고 건설업체와 재개발지역 주민간의 분쟁이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때 순환재개발을 도입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주공이 시행하는 모든 재개발사업은 이처럼 순환식으로 진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제9장 1994년-98년

1. 봉천6동 7-1지구

1992년 7월14일 사업계획결정고시, 1993년 12월27일 사업승인. 94년 1월의 조합총회시 재개발조합 설립위원 선출과정에서부터 깡패들을 고용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조합 설립 초반부터 문제가 있었다. 1994년 6월22일, 철거된 공가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측이 철거지역이라 갈 필요없다는 등 화재진압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이 뒤늦게 출동한 소방차를 막고 3시간 가량 농성을 벌였다. 이후 관할 동장과 파출소장, 소방서장의 사과를 받고 농성을 풀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방서에서 세입자대책위원회 임원 4명을 고소하였다. 경찰 조사중 세대위 감사 2인을 유치장에 억류하자, 주민들이 저녁 9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2시경까지 경찰서에서 농성을 벌였고, 이에 주민들을 전경차에 실어 분산시킨 뒤 모두 석방하였다.

1994년 8월26일 가이주단지 부지선정과 공공임대주택 공증을 요구하기 위해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며 구청농성을 벌였으나 모두 거부되었고, 10월5일에 다시 구청 농성을 하였으나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실무자 동석을 구청에서 거부하여 역시 면담이 무산되었다. 구청에서 사업구역내 가이주단지를 불허하는 이유는 구역내에 그 부지가 없고, 무엇보다도 가이주단지는 불법건축물이므로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면담과정에서 구청장은 “내 사전에 가이주단지란 없다. 재개발 역사상 가이주단지를 지어 준 곳은 없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제시하자 “그럼, 가이주단지 지어주는 곳으로 가서 살아라”고 하였다). 조합은 가이주단지를 지어주고 싶으나 구청에서 반대하므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1994년 3월14일, 세입자대책위원회 사무실에 용역반원 1명이 난입하여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 시비 도중 여러 용역반원이 가세하여 주민 5명이 부상당했다. 10월21일-22일 공가 철거를 막다 주민들 12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 중 3명은 입원하였다.

◆ '철거반원 항의여인에 "만행"...속옷에 연탄재 넣고 폭행(동아일보-95/04/26)

25일 오전 6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6동 봉천7의1 재개발지구 상가건물을 철거하던 J개발 철거반원 1백여명이 철거민대표 손모씨(40·여)등 4명을 폭행, 물의를 빚고 있다. 손씨등에 따르면 이날 자신들이 입주해 있는 상가건물이 철거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항의하러 가던중 철거반원 10여명이 달려들어 바지를 벗기고 속옷안에 연탄재를 집어넣는등 마구 폭행했다는 것.

철거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뒤늦게 출동, 폭행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손씨를 치료한 사당의원 金鍾九원장은 「손씨가 상처부위를 씻어낸뒤 병원에 왔지만 몸에서 연탄재가 검출됐다」며 「손씨는 또 허벅지와 오른쪽 가슴 등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 30대 주부 철거항의하러다 흥기에 찢려(조선일보-94/08/10)

10일 오전 0시20분경 서울 관악구 봉천3동 산89 재개발지역에서 철거에 항의하던 서울철거민연합회 소속 배이순씨(37·여,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577)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휘두른 흥기에 찢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강남고려병원에서 치료중이다.

배씨에 따르면 전날 밤 7시경 봉천6동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 부터 폭행을 당하고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현저동 주민 10여명과 함께 이 지역에 찾아가 항의하던 중 갑자기 30대 남자가 흥기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경위를 수사중이다.

◆ 관악구의회, 재개발관련 폭력근절 결의(조선일보-95/04/27)

관악구의회는 27일 관악구 주민 9천1백30명이 지난 19일 관악구 지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한 '관악구 재개발사업시 세입자보호를 위한주민청원안'을 결의했다.

관악구의회는 이날 주민들이 제출한 ▲재개발과정에서 야기되는 폭력사태의 근절 ▲강제철거 금지 ▲재개발 사업시 세입자의 참여보장 ▲철거시 임시주택 마련등 4개항의 청원안을 받아들여 구청 등에 권고키로 했다.

한편 지난 25일 오전 관악구 봉천6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용역회사의 직원들과 철거민들이 충돌, 주민 4명이 다친 사건이 일어났었다.

◆ 여연, 봉천동 철거반원 성추행관련 성명(조선일보-95/05/02)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한명숙,이영순)은 2일 서울 봉천동 재개발지역 철거과정에서 빚어진 철거반원의 주부에 대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관악경찰서는 성추행 진상을

조사,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가해자를 구속, 처벌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연은 또 ▲우성건설은 부상자에게 치료비를 대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할 것 ▲철거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조성하고 대책없는 철거를 즉각중지할 것 ▲살인적인 강제철거를 자행하는 적준용역을 해체할 것 등을 촉구했다.

◆ '철거반아저씨들 나빠요'(동아일보-95/08/24)

「무섭게 생긴 아저씨들이 큰 망치로 냉장고와 유리창을 막 부수고 엄마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녀요」

26일 새벽1시경 서울관악구봉천6동 봉천7의1 재개발지구내 철거민대책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3층짜리 건물의 2층에는 金泓基군(11·봉천국교4년)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泓基군은 전날 새벽6시경 엄마품에 안겨 달콤한 아침잠을 자던중 「아, 나와」라고 외치는 소리와 신발을 신은 채로 방안에 들이닥친 철거반원들의 기세에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철거반원들은 泓基군이 보는 앞에서 다짜고짜 어머니 張順子씨의 머리채를 낚아챈 뒤 가파른 1층 계단으로 질질 끌고 내려갔다. 이어 그들은 쇠파치로 냉장고와 TV 유리창등 가재도구를 마구 부렸다. 金군이 자던 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泓基군은 철거반원들의 억센 손에 휘둘리고 있는 엄마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무서운 마음이 더해 길가에 주저앉은채 쌍둥이 누나 恩仙 恩淑양(13)을 붙들고 울먹이기만 했다. 아버지는 마침 일찍 집을 비워 의지할 곳도 없었다.

泓基군은 철거반원들에게 맞아 신음하는 엄마가 학교에 가라고 등을 떠밀어 학교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학교에서도 하루종일 아침에 있었던 끔찍한 장면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아 선생님의 말을 귀담아 들을수 없었다.

더구나 같은반 친구들은 26일 강화도로 떠나는 소풍 이야기로 쉬는 시간마다 즐겁게 떠들었지만 泓基군은 혼자 자리를 지킨 채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특히 泓基군은 지난4월초 전에 살던 집이 화재로 불에 타버린 뒤 이곳으로 이사와 20여일만에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다.

泓基군은 이날 새벽1시가 넘어서야 난장판이 된 안방 한구석에서 엄마의 손을 꼭 붙잡은 채 간신히 잠을 잘수 있었다. 泓基군은 잠들기 전까지 엄마에게 「소풍날 담임선생님이 물을 얼려 갖고 오라고했다」며 「나쁜 아저씨들이 냉장고를 부숴 어떻게 물을 얼리느냐」고 울먹였다.

張씨는 막내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집안이 엉망이 돼서 얼음물은커녕 김밥이나마 제대로 싸줄수 있을지 걱정이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 봉천5동

◆ 봉천5동 재개발지역 철거반원과 주민 충돌(조선일보-95/07/20)

20일 오전 9시5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5동 봉천 제3재개발구역에서 인덕건설 소속 철거반원 1천여명이 재개발대상 주택 8백40여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 70여명과 충돌, 천선경씨(28) 등 주민 5명과 철거반원등 모두 10명이 다쳤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강제철거를 진행하려는 철거반원들과 맞서 30여분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던 중 철거반원들이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사업승인을 받아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인 봉천5동 재개발지역은 임시 이주시설 설치 문제로 조합측과 세입자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는 곳이다.

3. 전농3동

◆ 철거반원-주민 충돌 10여명 부상(조선일보-95/07/21)

21일 오전 7시께 서울 동대문구 전농3동 전농제4재개발구역에서 황보건설 소속 철거반원 7백여명이 재개발대상 주택 4백80여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 1백여명과 충돌, 주민 8명 등 10여명이 다쳤다. 주민들은 이날 강제철거를 진행하려는 철거반원들과 맞서 1시간30여분간 심한 몸싸움을 벌이던 중 철거반원들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사업승인을 받아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이지역은 임시 이주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세입자와 재개발조합측 간에 마찰을 빚어오고 있다.

◆ 철거민 111일째 천막농성(한겨레-97/11/12)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전농3동 재개발 현장.

송경심(39·여)씨 등 철거민 10여명이 살고 있는 천막집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10일 철거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쫓겨난 지 109일 만에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지난 1년 가까이 경희대의료원 영안실에서 7월25일 숨진 박순덕씨의 주검을 지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나 10일 박씨의 남편 등 유가족이 철거용역회사와 합의해 박씨의 주검을 가져감으로써 더 이상 병원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다.

한때는 수백호가 오순도순 모여 살던 곳. 그러나 지금은 철거와 땅 다지기 공사로 허허벌판이 된 이곳에서 이들은 다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자신들의 주거권을 되찾기 위해서다. 이들이 이 곳에 천막을 치자 그 유명한 자철거용역 직원들도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철거민들은 지난 11일 오후 관할 구청과 경찰, 건설회사, 재개발사업소 등과 함께 5자 회의를 열고 가수용 단지 건설, 부상자·구속자 처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다음에 만나 일괄 타결하자는 얘기까지 나와 철거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그러나 설사 그것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언제 가수용 단지가 건설돼 이들이 들어갈 수 있을 지는 모른다. 경기철거민연합의 조가영(23·여) 사무차장은 “전국 수십만 철거민들의 고통은 매일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가난한 철거민들이 재개발 뒤에도 자신의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철거민들은 농성 111일째 밤을 또 다시 천막에서 맞았다.

4. 마포구 난지도

- 서울특별시, 서울 새로운 탄생 미래의 땅 난지도, 1994.
- 마포구, 난지도 조립식주택 이주대책 추진결과 보고, 1995.7.18.
- 이호, 난지도와 난지도 주민의 주거권, 『도시와 빈곤』 21호, 한국도시연구소, 1996.

◆ "입주권은 '철거명분쌓기' 일뿐"(조선일보-96/08/16)

4백가구 대부분 '입주능력' 없어, 주택 남아 방치돼 대형사고 위험도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2번지.

난지도 주민 3백99가구 1천4백여명의 울어름은 유난히 더 무겁다. 이곳 주민들은 92년 쓰레기매립장이 폐쇄된 이후에도 난지도의 조립식 주택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막노동과 행상 등을 하면서 살고있는 마지막 난지도 사람들.

서울시가 임대-분양아파트 입주권과 4인 가족 기준으로 2백90여만원의 이주비를 주는 등의 이주대책을 확정, 6월부터 이주신청을 받고 있지만 주민들은 시름에 잠겨있다.

주민들은 『20년이상 살아온 만큼 땅의 연고권을 인정해 사유지를 불하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84년 주민들의 임시거주지로 제공한 조립식 주택이 이젠 너무 남아 붕괴위험이 있는데다 난지도의 공원화 계획에 따라 더 이상 철거를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주민들의 이주신청을 받아 올해 안으로는 강제철거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6일 오전 난지도 마을앞 채소밭에서 일을 하다 마주친 주민 육상철씨(60)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준다고 하지만 입주할 여유가 있는 가구는 10%도 안된다』며 『시의 대책은 강제철거명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불만스러워했다. 난지도에 산지 15년째라는 정정림씨(41·여)는 『80여 가구가 구청에 이주신청을 냈지만 이미 아파트 분양권의 절반이상은 복덕방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꽃이 있는 섬]이란 이름의 난지도는 지난 78년 쓰레기매립장 조성전까지만 해도 북쪽 난지천과 동쪽의 홍제천-불광천, 그리고 남쪽으로 한강을 사이에 둔 해발 6~7m의 모래섬에 불과했다. 그후 15년간 쌓이고 쌓인 쓰레기더미가 최고 96m 높이의 거대한 산이 됐다. 92년말 매립장이 문을 닫자 주민 8백여가구중 절반은 떠났고, 남은 주민들은 철골 조립구조의 임시거주처에서 살고 있다. 가구당 평균 면적은 4.4평. 이들 조립주택은 지붕과 벽체가 심하게 부식됐고, 불이 나거나 집중호우때 매립장 제방이 붕괴할 경우, 대형 재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올 들어서만 두차례 화재가 발생, 주민 1명이 목숨을 잃었다.

5. 무악동

1) 일지

1994년

- .11.6 : 무악 1구역 세대위 결성식
- .11.20 : 무악 1구역 세입자 대책 위원회 출범식 및 현판식
- .12.4 : 중계동 현판식 참석. 오류동 가이주 단지 방문
- .12.6 : 중계본동 광석마을 동절기 살인철거 규탄대회 참석.
- .12.18 : 대흥동 세대위 현판식 참석. 봉천 5동 3구역 세대위 결성식 참석.

1995년

- .1.8 : 하계동 가이주 단지 방문. 신내동 봉화동지 마을 가이주단지 방문.
- .1.22 : 시흥시 은행동 가이주단지 1주년 기념식 및 95주거연합 경기남부 지구 출범식 참석.
- .2.4 : 중계동 광석마을 철거투쟁 지원.
- .2.5 : 주거연합 관악 동작지구 출범식(봉천 2-2)참석. 노량진 본동 가이주 단지 방문.
- .2.12 : 중계동 광석마을 강제철거 현장 방문.
- .2.16 : 봉천동 강제철거 지원.
- .2.19 : 하왕 1-3지구 세대위 결성식 및 주거연합 성동, 동대문 지구 출범식 참여. 금호 6구역 가이주 단지 방문.
- .2.26 : 주거연합 중부지구 출범식 개최.
- .3.19 : 주민단합 대회 및 방법대 출범식 개최.
- .4.20 : 신당 3구역 세대위 방문.
- .4.23 : 부천 송내 출범식 참석.
- .4.25 : 폭력철거 근절 및 전월세값 안정을 위한 국민대회 참석.
- .4.29-30 : 청년회 단합을 위한 연수회.
- .5.1 : 무악동 임대료 거부 운동 본격 시작.
- .5.7 : 무악 1구역 세대위 한마당 조성.
- .5.11 : 홍제3동 27동 세대위 출범식 및 현판식 참석
- .5.23 : 삶, 나눔, 공동체 걸개그림 제작.
- .5.25 : 1995 통일맞이 노고대동제(서강대) 공부방 일일주점 참석.

- .6.4 :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서울시정개혁을 위한 시민견기대회에 참석.
- .6.11 : 신당3지구 세대위 1주년 기념행사 및 노래자랑 참석.
- .6.18 : 청년회 단합대회 및 활성화를 위한 모임 개최.
- .6.23 : 중계본동 광석마을 노원구청 항의농성 지원.
- .7.8 : 화재로 인한 조합 항의 농성.
- .7.16 : 타이어 방어문 작업.
- .8.1-3 : 주거연합 하기 수련회 및 제2차 중앙위원회 참석.
- .8.20 : 청년회 야유회 개최.
- .8.21 : 하왕 2-1지구 성동구청 농성 지원.
- .9.2 : 모우리 공동체 현판식 개최.
- .9.9 : 추석 한가위 축제 개최.
- .9.23 : 인천 석바위 출범식 참석.
- .9.25 : 모우리 협동 공동체를 위한 교육실시.
- .10.22 : 하왕 2-1지구 가이주 단지 입촌식 참석.
- .10.25 : 명도소송에 대한 조합 항의농성. 폭력사태로 14명 입원. 서대문 경찰서 항의농성.
- .10.30 : 10.25 사태에 대한 종로구청 항의농성.
- .11.4 : 무악동 투쟁속보 발간.
- .11.6 : 주택예산 증액과 재개발법 입법 촉구. 95 주거권 실현 국민대회 참석.
- .11.19 : 무악 1구역 세입자 대책위원회 1주년 기념식 및 가이주단지 쟁취대회 개최.
- .12.2-3 : 가이주단지 건설을 위한 입원 및 실무팀 연수회.

1996년

- .1.8-11 : 서울 대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빈민활동 체험 동참.
- .2.11 : 96 세계주거회의 및 한국지역 주민대회 참석. 신탄리, 송내동 풍물지원.
- .3.3 : 미아 5-1지구 세대위 결성식 및 현판식 참석.
- .3.7 : 고양시 행신동 성신마을 출범식 참석.
- .3.17 : 가이주 단지 설치를 위한 부지점령 천막설치 농성돌입.
- .3.22 : 경기지부 전진대회 참석.
- .3.24 : 중동지부 출범식 참석.
- .3.25-30 : 가이주 단지 부지 쟁취를 위한 주간교육 개최.
- .3.26 : 밀알 공부방 개최.
- .3.27 : 가이주 단지부지 쟁취를 위한 종로구청 항의농성 개최. 삼양동 강제철거에 대한 중앙 경찰

서 농성지원.

- .3.29 : 하왕 2-1지구 강제철거 투쟁지원.
- .4.2 : 주거연합 공동체 마을 견학 참석.
- .4.7 : 집없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 대축일 미사 개최.
- .4.10 : 삼양동(미아 6구역) 지원.
- .4.18 :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북부지역 주민대회 및 96북부지부 출범식 참석.
- .4.20 : 세계주거회의 한국민간위원회 주민보고 및 96 주거연합 동부지부 출범식 및 거주권 확보를 위한 전진대회 참석.
- .4.21 : 행당 1-2지구 세입자 대책위원회 결성식 및 현판식 참석.
- .5.1 : 가이주단지 설치를 위한 천막농성 마감.(46일째)
- .5.6 : 가이주단지 설치를 위한 터담기 공사.
- .5.20 : 세계주거회의 참여와 주거빈곤 퇴치를 위한 주거권실현 국민대회 참석.
- .6.2 : 미아7동 1-1지구 세대위 결성식 및 현판식 참석.
- .6.16 : 세계주거회의 보고대회 및 세대위 창립 3주년 기념 오쇠동 주민 단오 한마당 참석.
- .6.23 : 제7회 성동 단오맞이 한마당 참석.
- .7.21 : 미아 1-2구역 세대위 현판식 참석.
- .7.28 : 시화지구 오이도 세대위 출범식 및 현판식 참석.
- .8.12 : 주거연합 하기 수련회 참석.
- .8.26 : 무악마을(가이주단지) 동, 호수 추첨.
- .9.14 : 무악마을 첫 입주.
- .9.15 : 96 주거연합 경기도 지부 전진대회 및 부천시 상동 세대위 결성식 및 현판식 참석.
- .9.16-17 : 무악마을 공동체 구상안 검토를 위한 연수.
- .10.3 : 제3회 96 청소년 문화제 민들레의 합창 참석.
- .10.6 : 금호 1가 바탕고를 가이주단지 입촌식 및 어우러지는 한마당 참석. 무악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설문 조사.
- .10.13 : 종로구민 체육대회 참석.
- .10.14-17 : 지속가능한 공동체 만들기-하비타트 지역화를 위한 정책 워크샵 참여.
- .10.20 : 전농동 로터리 시장 세대위 출범식 참석.
- .10.24 : 시흥시 작은자리 방문.
- .10.26 : 노원구 주민자활센터 나눔의 집 방문.
- .10.27 : 오류시장 세대위 출범식 참석.
- .10.29 : 미아7동 강제철거에 대한 조합농성 지원.